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1

열왕기상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열왕기상

1 Kings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11:11)

וַיֹּאמֶר יְהוָה לְשָׁלֹמֹה יֶעָן אֲשֶׁר הִיָּתְהוּאֵת עִמָּךְ וְלֹא
שָׁמַרְתָּ בְּרִיתִי וְחֻקֹּתַי אֲשֶׁר צִוִּיתִי עֲלֶיךָ קָרַע אֶקְרַע
אֶת־הַמְּמַלְכָה מֵעֲלֶיךָ וְנָתַתִּיהָ לְעַבְדֶּיךָ:

열왕기상 차례

열왕기상 서론	〈12제〉	… 11
제 1 장 왕위 계승을 위한 경쟁	〈26제〉	… 15
제 2 장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	〈15제〉	… 22
제 3 장 솔로몬의 지혜	〈12제〉	… 28
제 4 장 솔로몬 왕국의 국위(國威)	〈13제〉	… 32
제 5 장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11제〉	… 36
제 6 장 성전 건축의 완성	〈17제〉	… 39
제 7 장 솔로몬 왕국의 건축 및 성전의 내부 시설	〈18제〉	… 44
제 8 장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33제〉	… 49
제 9 장 하나님의 언약과 솔로몬의 건축 사업	〈17제〉	… 58
제 10 장 솔로몬 왕국의 절정기	〈16제〉	… 63
제 11 장 솔로몬의 타락과 그의 죽음	〈25제〉	… 67

제 12 장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26제〉	… 73
제 13 장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19제〉	… 79
제 14 장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르호보암의 통치	〈21제〉	… 84
제 15 장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전쟁	〈17제〉	… 90
제 16 장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7제〉	… 95
제 17 장	엘리아의 출현과 초기 사역	〈19제〉	… 100
제 18 장	갈멜 산에서의 엘리아	〈25제〉	… 105
제 19 장	호렙 산에 피신해 있던 엘리아	〈15제〉	… 112
제 20 장	아합 왕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20제〉	… 116
제 21 장	아합 왕의 범죄와 엘리아의 경고	〈14제〉	… 122
제 22 장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다	〈20제〉	… 126

열왕기상 특별 자료 차례

열왕기상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14
-------------------------------	----

제 2 장	〈화보 자료〉	여호와를 찬양하는 솔로몬 왕.....	27
제 3 장	〈화보 자료〉	솔로몬의 재판.....	31
제 6 장	〈화보 자료〉	기둥을 싸는 금박(金箔).....	43
제 7 장	〈연구 자료〉	성경에 나오는 길이의 기본 단위인 규빗.....	48
제 8 장	〈본장의 요절〉	57
제 9 장	〈화보 자료〉	게셀 (Gezer).....	62
제 10 장	〈본장의 요절〉	66
제 13 장	〈본장의 요절〉	83
제 14 장	〈연구 자료〉	부어 만든 우상 (molten image).....	89
제 15 장	〈본장의 요절〉	94
제 16 장	〈본장의 요절〉	99
제 19 장	〈지도 자료〉	엘리아의 도피 여정.....	115
제 20 장	〈화보 자료〉	금으로 만든 귀걸이.....	121
제 22 장	〈연구 자료〉	성경의 전쟁관.....	132

열왕기상 서론

1. ㉠ 열왕기의 제목(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멜라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즉 이것은 '왕국들'이라는 뜻이다.
- (2) 본서는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LXX)에서 사무엘서와 연속되는 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70인역(LXX)에서는 지금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하여 하나의 책인 '왕국기'로 부르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왕국기 1, 2, 3, 4로 구분하였다.
- (3) 그 후 4세기에 편찬된 제롬(Jerome)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에서는 왕국기 1과 2를 사무엘서로, 왕국기 3과 4를 열왕기서로 명명(命名)하였다.
- (4) 또한 1448년에는 벌게이트에서 사용된 명칭이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에도 적용되었다.
- (5) 마침내 1517년 봄베르그(Daniel Bomberg)에 의하여 출판된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늘 날과 같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구분되었다.
- (6) 본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의 역사를 재위(在位) 순서대로 다루고 있으므로 열왕기라는 책명은 본서의 내용과 성격을 적절하게 나타낸 것이다.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에는 저자를 알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 (2) 그러나 본서의 내용으로 볼 때 바벨론 지방에서 살던 어떤 유대인 포로가 본서의 저자임에는 틀림없다.
- (3) 유대인의 전승과 일부 탈무드에서는 본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해는 요시야 왕 13년(B.C.627년경)이며(렘 1:2)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적어도 20세 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② 만일 저자가 예레미야라면 본서 기록 연대를 B.C. 562년 이전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참조, 문 3) 본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나이는 86세 내지 87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③ 그러나 본서의 저작 방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노인의 저작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예레미야를 본서의 저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4) 이외에도 본서의 저자를 밝히는 많은 학설이 있으나 모두 신빙성이 없다.
- (5)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한 유대인이라고 추론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다.

3. ㉢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에는 여호야긴 왕이 B.C.599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 포로 생활을 보낸 후 B.C.562년경 바벨론 왕 에윌트로닥에 의해 석방되는 사건이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왕하 25:27-30). 그러므로 본서의 저작 연대는 B.C.562년 이전으로 잡지 못한다.
- (2) 또한 B.C.536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제 1차로 귀환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열왕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본서가 B.C.53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그러므로 본서의 저작 연대는 B.C.562-536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4. ㉣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12 열왕기상 서론

- A** (1) 본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열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고 종교적인 견지에서 역사를 기록하였다.
- (2) 즉 본서에는 여러 군왕들의 행적이 자국(自國)과 인접국과의 관계에서 서술되기 보다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 (3) 그리하여 본서는 선민의 군왕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하고 그의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4) 결국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 성쇠(興亡盛衰)가 곧 이스라엘 왕들과 국민들의 경건과 신앙, 혹은 불신과 우상 숭배의 결과였음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다.

5. **Q**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A** (1) 고대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역사 편찬(historiography)을 시작하였다.
- (2) 다윗 왕 당시에는 이집트가 쇠퇴 일로에 있었고 앗시리아는 미약한 민족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으며 매우 평화스러웠다.
- (3) 그러나 그 후에 산헤립이 이끄는 앗시리아 군대가 유다에 침입해서 여러 성들을 빼앗았지만 이집트의 견제 세력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B.C.705-681).
- (4) 한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승 장구하여 팔레스틴을 침략하였으며 제 3차 원정 때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성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B.C.586).
- (5) 열왕기에는 솔로몬 왕의 즉위(B.C.970)로부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석방된 때(B.C.562)까지 4세기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수록되어 있다.

6. **Q** 본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A** (1) 본서에는 왕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나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해 완전하고 세부적인 역사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 (2) 오므리 왕이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강력한 왕들이 약간 언급된 반면 왕이 아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아닌 요시야 왕 등의 인물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3) 이것은 저자의 저술 목적이 단순히 분열 왕국 시대를 다스린 여러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교훈, 즉 선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르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민족과 왕에게는 축복하시고 반면에 율법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대상에게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하여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7. **Q** 열왕기는 무슨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기록되었는가?

- A** (1) 열왕기의 내용들을 볼 때 많은 부분이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기록된 것이 명백하다.
- (2) 그 자료들은 '솔로몬의 행장' (왕상 11:41), '유다 왕 역대 지략' (왕상 14:29;8:23 등),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왕상 14:19;왕하1:18) 등 세 가지이다.
- (3) 열왕기의 저자가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본문 자체에서 30번 이상이나 밝히고 있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많은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똑같은 자료에서 인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8. **Q** 열왕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 A** (1) 본서의 특징은 한 마디로 통일성과 독립성이다.
- (2) 본서에는 4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 펼쳐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이 주는 의미는 하나의 통일된 사상으로 나타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 (3) 또한 본서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 완전히 독립된 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독립성은 본서

의 시작과 결론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가장 영광스런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의 파괴가 이루어진 시대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4) 그러므로 본서는 오직 한 가지의 사상이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진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 내용의 책이다.

9. **㉠ 열왕기를 내용에 따라 3시대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

㉠ (1) 제 1기는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이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권세와 영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 결과 왕국은 차츰 기울어졌다. 마침내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B.C.970-930).

(2) 제 2기는 남왕국(유다)과 북왕국(이스라엘)의 분열에서부터 시작하여 두 왕국이 공존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10지파)이 앗수르에게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말한다(B.C.931-722).

(3) 제 3기는 남왕국, 즉 유다 왕국의 역사이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 유다 왕국이 외적들과 싸우며 지내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석방되었다(B.C.722-562).

10. **㉠ 열왕기에 나타난 왕국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라.**

㉠ (1) 통일 왕국 시대-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 때부터 솔로몬 왕(B.C.1043-930) 때까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본서에는 솔로몬 왕국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통치 기간은 약 40년이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또한 솔로몬 왕국의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 완성시킨 것이다.

(2) 분열 왕국 시대-이스라엘이 남왕국(유다)과 북왕국(이스라엘)으로 분열된 시대(B.C.931-722)를 가리킨다.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제 1대 왕 여로보암 1세부터 제 19대 호세아 왕까지 계속되다가 B.C.722년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멸망했다. 한편 남쪽 유다 왕국은 제 1대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제 13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고 그 후에 유다는 단일 왕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다.

(3) 단일 왕국 시대-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쪽의 유다 왕국만이 단일 왕국으로 남아 있던 시대(B.C.722-586)를 가리킨다. 유다 왕국이 제 13대 히스기야 왕 때부터 단일 왕국으로 계속 존립하다가 제 20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민족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준다.

11.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통일 왕국 시대 / 1:1-11:43

① 솔로몬의 등극 / 1:1-3:1

② 솔로몬의 지혜 / 3:2-4:34

③ 솔로몬의 성전 / 5:1-8:66

④ 솔로몬의 명성 / 9:1-10:29

⑤ 솔로몬의 타락 / 11:1-43

(2) 분열 왕국 시대 / 12:1-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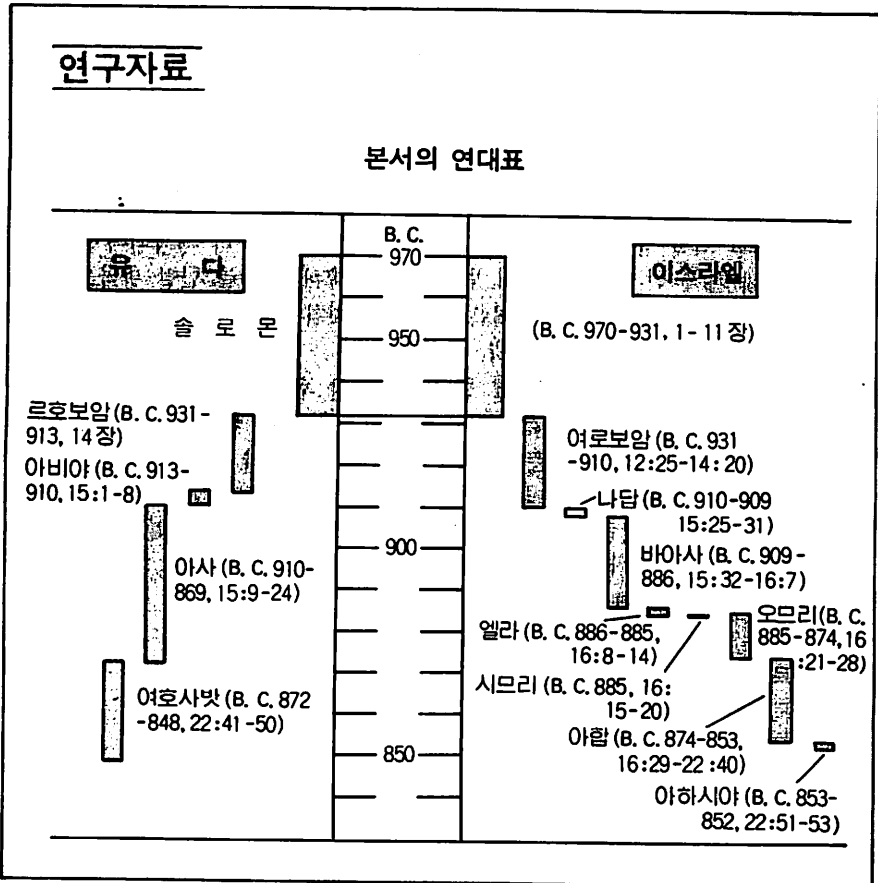
① 왕국의 분열 / 12:1-24

14 열왕기상 서론

- ② 여로보암 1세의 이스라엘 통치 / 12:25-14:20 (B.C.931-910)
- ③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 14:21-31 (B.C.931-913)
- ④ 아비야(아비얌)의 유다 통치 / 15:1-8 (B.C.913-910)
- ⑤ 아사의 유다 통치 / 15:9-24 (B.C.910-869)
- ⑥ 나담의 이스라엘 통치 / 15:25-31 (B.C.910-909)
- ⑦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 / 15:32-16:7 (B.C.909-886)
- ⑧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 / 16:8-14 (B.C.886-885)
- ⑨ 시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 16:15-20 (B.C.885)
- ⑩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 16:21-28 (B.C.885-874)
- ⑪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 / 16:29-22:40 (B.C.874-853)
- ⑫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 22:41-50 (B.C.872-848)
- ⑬ 아히시야의 이스라엘 통치 / 22:51-53 (B.C.841)

12. ㉠ 본서의 중심되는 귀절은 무엇인가?

㉠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11:11).



제 1 장 왕위 계승을 위한 경쟁

단락구분 1-4 아비삭이 늙은 다윗을 봉양하다 / 5-10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다 / 11-14 솔로몬 주대 운
 등 / 15-21 다윗과 밋세바의 면담 / 22-31 나단의 계획과 다윗의 결단 / 32-37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한 다
 윗의 명령 / 38-39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다 / 40-53 아도니아의 음모 실패와 그에 대한 솔
 로몬의 관용

1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 그 신부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듯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3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넵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 왔으니

4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붙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5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오십 인을 예비하니

6 저는 암살범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저희를 좃아 도우나

8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9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들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11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12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13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4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15 밋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수넵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16 밋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이나

17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19 저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까

20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 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까

21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22 밋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3 혹은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까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24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나이까

25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까

26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나

27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이까 그런 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28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29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30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31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32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33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오

34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오

35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제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제서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8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40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

여 갈라질 듯하니

41 아도니야와 저와 함께 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노

42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43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대

44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45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46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47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48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대 하니

49 아도니야와 함께 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50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51 흑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니이다

52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열왕기가 시작되는 본장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무렵 왕자들간에 왕위의 계승을 위한 심한 경쟁이 있었으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2:15).
- (3) 이와 같이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

는 것이다(참조, 잠 19:21).

2. **㉠**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인가? (1절)
- ㉠** (1) 당시 다윗 왕의 나이는 약 70세 가량되었다(삼하 5:4, 5; 왕상 2:11). 그는 30세에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약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2) 본장은 결국 다윗 왕이 늙고 병들어 나라를 잘 돌아보지 못하므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기회가 생겼음을 보여 준다.
- (3) 또한 이런 사건 때문에 솔로몬이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3. **㉠** '왕을 모셔 봉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히로 소케네트>인데 이를 직역하면 '왕에게 간호원이 되게 하다'가 된다. 여기서 <소케네트>란 말은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소켄>의 여성형으로 '여자 친구', '간호원'을 뜻한다.
- (2) 쇠약해진 늙은 왕을 간호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자가 필요했다.
- (3) 그 당시에는 약(藥)이나 치료법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극진히 간호하고 수증드는 일이 중요한 치료법이었다.
4. **㉠** 젊은 처녀로 하여금 왕의 품에 누워 왕을 따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늙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몸에 온기가 없으며 추위를 몹시 느낀다.
- (2) 그러므로 젊은 처녀로 하여금 왕의 품에 눕게 한 것은 왕의 몸에 온기를 북돋우기 위함이었다.
- (3) 이것은 고대의 의술자들이 권장하는 고대의 중요한 처방이었다.
- (4) 따라서 다윗의 품에 젊은 여자를 안겨 준 것은 부부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진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의료 행위였다.
5. **㉠** 늙은 다윗 왕을 봉양했던 아비삭의 고향에 대해 말하라(3절).
- ㉠** (1) 그녀의 고향은 수넵이었다.
- (2) 수넵은 나사렛에서 11.2km되는 곳에 위치하였으며 헤르몬(Hermon) 산의 남동쪽에 있다.
- (3) 수넵은 잇사갈 지파의 한 고을(수 19:17, 18)로서 이스드라엘론의 넓은 평야를 바라보며 비옥한 농토와 수림(樹林)에 둘러싸여 있다.
- (4) 이곳은 '솔람피'라고도 일컬어졌으며 또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솔람'이라고 불리우며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6. **㉠**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 암논과 세째 아들 압살롬은 다말 사건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고(삼하 13:29; 18:14),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은 듯하다(대상 3:2).
- (2)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째 아들이었지만 그 당시 생존한 아들들 중에서는 최연장자였기 때문에 서열상 왕위에 오를 자였다.
- (3) 또한 아도니아가 용모가 아름다워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왕자다웠기 때문에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 (4) 그리고 그는 주위의 인물들, 특히 요압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주(使曷)를 받았다.
- (5)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 (6)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시 107:10, 11).
7. **㉠**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篡奪)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외적, 내적인 교만때문이었다. 그는 교만이 멸망의 선봉임을 깨닫지 못했다(잠 16:18).
- (2) 또한 아도니아가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 섭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도자(왕)가 될 수 없다.

8. **㉠** 아도니야가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 (1)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도니야를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 (2) 그러나 이것은 아도니야가 주의받을 만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윗이 아도니야로 하여금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를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 (3) 다윗이 자녀들에 의해 여러 번 고통을 당한 것은 자녀들을 적당히 훈계하는 일을 실패한 데서 오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참조, 히 12:5-11).
- (4) 이와 같이 본문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며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부모는 늙어서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

9. **㉠** 아도니야가 일으킨 반란에 가담했던 주요 인물들은 누구인가? (7절)

- ㉠** (1) 아도니야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였다.
- (2) 다윗을 돕던 군대 장관 요압은 한동안 다윗에게 잘못보였고(왕상 2:5, 6) 전에도 다윗의 의견과 충돌한 일이 종종 있었다(삼하 3:27; 20:10). 그래서 그는 아도니야를 도와 왕이 되게 함으로써 그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 (3)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도망하여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삼상 22:23; 23:6) 이제 제사장 사독을 시기해서 아도니야의 음모에 가담했던 것이다.
- (4) 이들의 왕위 찬탈 음모는 빈틈 없이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나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 (5) 이같이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좇아 불의를 행한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 (6) 따라서 본문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잠 19:21)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

10. **㉠** 아도니야가 소헬렛 둘 곁에서 향연을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9절)

- ㉠** (1) 소헬렛의 둘은 자연 그대로 제단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 (2) 그러므로 이 향연은 종교적 제사를 가장한 것이었다.
- (3) 이것은 그들의 음모를 은폐하는 동시에 정신적 결속(結束)을 굳히기 위함이었다.
- (4) 악한 자들은 어두움에 처하여 항상 남을 속이기를 좋아한다(참조, 요 3:19, 20).

11. **㉠** 아도니야는 어떤 의도에서 솔로몬 등을 향연에 초청하지 않았는가? (10절)

- ㉠** (1) 솔로몬의 왕위는 일찌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하신 것이었다(삼하 7:12-17; 대상 22:6-10).
- (2) 이에 따라 다윗 왕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 (3) 그러므로 다윗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아도니야가 솔로몬과 다윗의 충성스런 신복들을 향연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 (4) 이와 같이 아도니야가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 행위를 한 것은 무서운 죄악을 범한 것이다.

12. **㉠** 나단이 행한 계교(計較)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 ㉠** (1) 나단은 아도니야의 반역 운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반역 사건을 말하고 그녀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보고하도록 종용하였다.
- (2) 그 후에 나단 자신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고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 (3) 사실 밧세바야말로 다윗의 아내로서 그에게 접근하는데 있어 나단의 가장 적당한 다리였으므로 나단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다.

13. **㉠**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면담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라(15-21절).

- ㉠** (1) 바세바는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맹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참조, 7:13; 대상 22:9, 10)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아도니아가 반역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 (2) 이어서 바세바는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혼돈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다윗 왕이 자기 후계자를 선포하는 일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3) 이러한 바세바의 말은 직면한 문제의 시급성을 다윗 왕에게 일깨워 주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할 수 있게 하였다.
- (4) 경건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마땅히 행할 직무를 잊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가까운 보좌관들이 선의(善意)의 충고로써 그 직무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14. **㉠** 왕이 ‘열조(列祖)와 함께 잔다’는 뜻은 무엇인가? (21절)

- ㉠** (1) 이것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 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 당시에는 죽음을 하나의 끝없는 수면(睡眠) 상태로 보았다.
- (3)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행 24:15; 고후 4:14).
- (4)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생활을 충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15. **㉠** 나단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2-27절)

- ㉠** (1)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그를 충고하는 역할을 했다.
- (2) 이러한 나단은 다윗의 친구이며 신임받는 충고자로서 다윗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 (3) 성경에는 나단이 다윗을 충고하여 성전 건축 계획을 무산시킨 일(삼하 7:5-17) 과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에 대하여 면책한 일(삼하 12:1-14) 등이 기록되어 있다.
- (4) 결국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도니아의 음모를 무산시킴으로써 솔로몬 왕국의 터를 닦아 놓은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의한 일을 막는 데 앞장서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6. **㉠**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9절)

- ㉠** (1)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되 특별히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 (2) 이것은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 (3) 따라서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실하듯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도 확실하므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분명한 의지(意志)의 선언이다.
- (4) 다윗이 이처럼 분명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솔로몬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대상 22:9, 10; 28:5, 6).
- (5)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다(참조, 답후 3:14).

17. **㉠**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33절)

- ㉠** (1) 그 당시에 왕과 왕자는 노새를 탔으며 보통 사람들은 나귀를 탔다(삼하 13:29).

20 열왕기상 1장

- (2) 그리고 말은 그 당시에 없었으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애굽으로부터 수입되었으나 타는 것보다 마차를 끄는 데 사용되었다(왕상 4:26;10:28).
- (3) 그러므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는 것은 그가 왕의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 (4) 이 광경을 보는 백성들은 왕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임으로 백성들의 혼란을 막았던 것이다.

18. **㉠**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곳은 어떤 곳인가? (33절)

- ㉠** (1) 기혼이다. 기혼은 예루살렘 성 바깥 동쪽에 위치하며 기드론 계곡 위쪽에 있는 샘이 솟는 곳이다.
- (2) 이곳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水源)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후에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실로암 저수지를 만들었다(대하 32:30).
- (3) 또한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어 기름 부음 받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19. **㉠**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34절)

- ㉠** (1)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마쉬아흐>인데 오늘날 메시아(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성별한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 (2)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사명자로 위임하였다.
- (3) 이와 같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의해 세움을 입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삼상 10:1; 왕하 9:3).
- (4)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하라는 의미이다. 그와 더불어 그 일은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권력 이양의 표상이었으므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5) 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모형적 의미가 있다.

20. **㉠** 양각을 부는 의미는 무엇인가? (34절)

- ㉠** (1) 양각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독특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낸다.
- (2) 이것은 경종(警鐘)으로 불기도 하고(암 2:9), 행군의 구호로도 쓰며(슌 1:16), 후에는 특별한 종교 의식에도 사용되었다(레 25:9).
- (3) 또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에는 항상 양각이나 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이 왕의 즉위를 알도록 선포하는 행위이다.

21. **㉠**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35절)

- ㉠** (1) 다윗은 얼마 동안 유다만을 통치하였으나 후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다(삼하 5:5).
- (2) 12지파가 다윗에 의해 처음으로 통일되었으나 양대 세력이 다윗의 통치 아래 계속 견지(堅持)되고 있었다.
- (3)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강성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22. **㉠** 브나야는 다윗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가? (36, 37절)

- ㉠** (1) 브나야는 남은 신하들을 대표해서 다윗의 말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대답하였다.

- (2) 이어서 그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다윗의 그것보다 더욱 위대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말을 덧붙였다.
- (3) 이러한 브나야의 대답은 다윗에게 아침하거나 단순히 맛장구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위가 계승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된 말이다.
- (4) 브나야의 소원은 실제로 이스라엘 왕조에서 다윗의 통치에 이어서 최대의 전성 시대(全盛時代)를 구가한 솔로몬 통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3:13; 대하9:22).
- (5) 여기서 다윗의 통치가 지상에서의 전투적 교회를 상징한다면 솔로몬의 통치는 천상의 승리 교회를 상징한다.
- (6) 오늘날 브나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신천 신지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23. **㉠** 솔로몬의 왕위 즉위를 도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누구인가? (38절)

- ㉠** (1) 그렛 사람은 그레데(크레티아) 섬 주민을 의미하며, 블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을 말한다.
 (2) 이들은 팔레스틴의 해안 지방에 사는 토착민으로서 외국인으로 조직된 용병이며 다윗의 왕궁 친위 대원이었다.

24. **㉠** 성막 가운데서 기름 뽑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9절)

- ㉠** (1) '거룩한 기름'은 언약계가 보관된 성막 안에 보존되었다(삼하6:17; 대상15:1).
 (2) 이 기름을 성막에서 가져오는 것은 왕에게 근본적으로 신정적(神政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나타낸다.

25. **㉠**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사실이 아도니아에게 언제 전달되었는가? (41-48절)

- ㉠** (1) 아도니아가 연회(宴會)를 마치려 할 즈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와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사실과 백성의 환호하며 즐거워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2)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아도니아의 일행이 먹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오랫동안 먹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 그들은 결국 먹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노아 시대와 소돔 시대에도 멸망의 때를 앞두고 '먹고 마시다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눅17:26).
 (4)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 들이고(눅16:18)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 (빌3:19)들이다.

26. **㉠** 제단 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1절)

- ㉠** (1) 제단 뽑은 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으로 신의 힘을 상징하였다.
 (2)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제단 뽑에 매기도 했으며(시118:27),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바르기도 하였다(출29:12).
 (3) 제단 뽑은 제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이므로 살인자가 그 뽑을 잡고 있는 동안은 보수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4) 제단 뽑을 범 죄자의 도피처로 삼는 일은 출애굽 이후 성막 제도와 더불어 있었는데 실수로 살인한 자가 제단 뽑을 잡으면 죽임을 면하였다(출21:12-14).
 (5) 결국 아도니아가 제단 뽑을 잡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와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호소한 것이다.
 (6)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악한 행실을 뉘우치고 고치면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적인 의미를 나타낸다(요일1:9).

제 2 장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

단락구분 1-9 다윗의 유언 / 10-12 다윗의 죽음과 그의 재위(在位)연대 / 13-25 아도니아의 최후 / 26-27 아비아달의 파면 / 28-35 요압의 최후 / 36-46 시므이의 최후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빌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회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띠 띠와 발에 신은 신에 꼰었으니
 6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7 마땅히 길르앗 바살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느니라
 8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10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11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 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을 치리하였더라
 12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13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밋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4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밋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15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6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팔시하지 마옵소서 밋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17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넵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팔시치 아니하리이다
 18 밋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19 밋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20 밋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팔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팔시하지 아니하리이다
 21 가로되 청컨대 수넵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22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넵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23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

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 하면 하나님은 내게 별 위에 별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4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26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이나 뜻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와 궤를 맺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8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저가 여호와와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암살됨을 좃치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좃았음이라

29 흑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와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30 브나야가 여호와와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물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낼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벨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33 저희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

원히 있으리라

3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며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35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36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으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7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녕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8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9 삼 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흑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40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흑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42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3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4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의 아는 모든 약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45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할 때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말하라.

㉠ (1) 저자는 본장에서 다윗의 임종 기사와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의 숙청(肅清)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2) 다윗의 임종 기사는 제 1장에 기록된 사건과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 차이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후에도 많은 정사(政事)를 처리했기 때문이다(참조, 대상 23-29장).

(3) 그러나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에 주안점(主眼點)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의 역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다윗과 솔로몬 간의 세대 교체만을 언급했다.

- (4) 한편 저자는 무자비하게 보이는 숙청 작업도 솔로몬의 왕국 건설을 위한 준비 단계로 설명하였다.
- (5) 본장에서 저자는 솔로몬의 즉위와 숙청 작업이 정당한 것이며 그의 왕국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12, 45, 46절).
- (6)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실(삼하 7:12-17)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교훈을 준다.

2. **㉠**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후에 처리했던 정사(政事)는 무엇인가?

- ㉠** (1) 다윗 왕은 건강을 다시 회복한 후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모아 놓고(대상 23:2) 성전 예배에 관한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였으며 성전의 건축 계획을 발표하였다(대상 23:1-29:9).
- (2) 또한 그는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많은 제물을 드렸다(대상 29:10-22).
- (3)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포하는 의식을 성대히 행하였다(대상 29:21-25).
- (4)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솔로몬 왕국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건설해 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섭리였다.

3. **㉠** 다윗의 유언(遺言)의 내용과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행할 일로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2) 즉 이 유언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 (3)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네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삼하 7:11-16)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다.
- (4) 두번째 부분은 사람들에게 행할 일로써 지혜롭게 행하도록 명령하였다(5절).
- (5)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유언은 인간 다윗의 파란 만장한 생애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한 길로 살아왔음을 체험을 통하여 깨닫고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이 교훈하고 있다.
- (6) 성도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자손들에게 큰 교훈으로 물려 주어야 한다.

4. **㉠**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이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사(有司)들에게 쓴 표현을(수 23:14) 인용한 것이다.
- (2) 다윗은 죽음을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평안히 맞이하려 하였다.
- (3)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요 11:25, 26).
- (4)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히 11:16).

5. **㉠**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 (1) 이 말은 '강하게 하여 남자가 되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뜻에 가깝다.
- (2) 다윗의 이러한 권면은 솔로몬이 20세 가량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였으므로(대상 29:1) 그가 연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조, 딤후 4:12).
- (3) 또한 다윗이 '남자가 되라'고 한 말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남자처럼 용기있게 행동하라는 뜻이다(참조, 수 1:7-9).
- (4) 이것은 성도가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사단의 혼듬과 유혹이 찾아와 그의 마음

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고전 16:13, 14).

6. **㉠**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3절)

㉠ (1) 본문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와 그의 명을 지키라’는 의미이다(레 8:35).

(2) 이 말 속에는 왕직(王職)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직분임을 나타내는 다윗의 교훈이 담겨 있다.

(3)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행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다.

7. **㉠**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3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공평(公平)의 길이다(신 32:4).

(2)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공평으로 다스려야 했다.

(3)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며 좌(左)로나 우(右)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참조, 신 5:32; 28:14; 수 1:7; 23:6; 잠 4:27).

8. **㉠**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만 백성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다.

(2) 그것은 인간이 제정한 법과 제도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자칫 소수의 집권층만을 위한 악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므로 그 법대로 통치하는 자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게 된다(참조, 롬 7:12).

(4) 그리고 본문에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로 세분하여 말한 것은 통치 사역 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원리가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9. **㉠** ‘행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3절)

㉠ (1) 이 말의 원뜻은 ‘지혜롭게 행동하다’이며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지혜롭다’로 번역되었다(참조, 삼상 18:5, 14, 15, 30; 시 94:8; 잠 10:5; 렘 23:5; 단 11:33 등).

(2)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써 번영의 길을 걷게 된 사실(왕상 4:29, 30)을 볼 때 이 말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3) 한편 본문에서처럼 율법에 순종하면 행통한다는 것은 신명기의 주제이며(신 28:1-14), 동시에 열왕기 전체에 면면히 흐르는 교훈이기도 하다.

(4) 또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與否)는 솔로몬을 위시한 이스라엘 열왕(列王)들의 선악을 평가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되며 모든 성도들이 종말에 당할 심판의 기준이 된다(참조, 롬 2:12).

10. **㉠** 다윗과 솔로몬이 요압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5, 6, 32, 33절)

㉠ (1)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로서(대상 2:16)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다윗의 또 다른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대상 2:16, 17)를 살해하였다(삼하 3:27; 20:10).

(2) 요압의 살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었던 이유는 화평 중에 왕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보복 행위였기 때문이다(삼상 3:29, 30).

(3)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힘이 없어서 한평생 한을 품고 지냈으며(삼하 3:39) 이제 솔로몬에게 그를 처벌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4) 왕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야 할 하나님의 대행자(代行者)로서 당연히 처벌할 자를 방관해 둘 경우에는 왕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참조, 시 101:3-8).

(5) 그러므로 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되었다(창 9:6; 출 21:12).

11. ㉠ 다윗이 바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유언한 이유가 무엇인가? (7절)

- ㉠ (1) 압살롬의 반역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으나 바실래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삼하 19:32) 다윗과 그 신하들을 대접한 공로가 있었다(삼하 17:27-29).
- (2) 그는 무력으로 다윗을 돕지는 않았으나 배고픔과 실의(失意)에 빠졌던 다윗에게 큰 위안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삼하 17:27-29).
- (3) 그런데 후일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그에게 보살핌하려고 했으나 그는 겸허하게 사양하는 미덕을 보였다(삼하 19:33-39).
- (4) 다윗이 솔로몬에게 은총 베풀 것을 유언한 것은 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준다.
- (5) 솔로몬은 후에 '네 친구와 네 아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잠 27:10).

12. ㉠ 아도니아가 수벰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아비삭은 노쇠한 다윗 왕의 품안에서 그의 몸을 따듯하게 해주던 여자였다(1:3, 4).
- (2) 그녀는 다윗 왕과의 육체적 관계는 없었지만(1:3) 분명히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다.
- (3)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는 선왕(先王)의 첩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왕위를 널리 인정받는 풍습이 고대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했다. 다윗도 일찌기 사울의 첩들을 취한바 있었다(삼하 12:8). 그리고 압살롬 역시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삼하 16:21, 22).
- (4)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은연 중 자신을 다윗의 후계자로 부각시키려는 간교(奸巧)한 술책(術策)을 드러낸 것이다.

13. ㉠ '집을 세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절)

- ㉠ (1)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이 말은 주로 '건물'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창 50:22; 수 2:18; 렘 38:17).
- (2) 그래서 본문의 '집을 세우다'라는 말을 '가정을 세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참조, 룻 4:11).
- (3) 또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유랑(流浪) 민족 시절 장막에서 기거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옥 생활을 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착하여 산다'는 뜻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다(참조, 삼하 7:6, 7).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집을 세우셨다'는 말은 솔로몬의 '왕국(왕위)을 견고케 하셨다'는 의미이다.
- (5)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처벌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 것은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2:46).

14. ㉠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어떻게 처벌하였는가? (26, 27절)

- ㉠ (1) 제사장 아비아달은 왕위를 찬탈(篡奪)하려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였는데(1:7)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罷免)하고 아나돗으로 추방했다.
- (2)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추방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①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여 오벰에돔의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그 궤를 메는 일에 참여하였기(대상 15:11-15) 때문이다. ② 또한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삼상 22:20 이하)와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삼하 15:24 이하) 그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동고 동락(同苦同樂)하며 충성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아비아달이 비록 목숨은 건졌다고는 해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한 것은 종교인으로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 (4) 이와 같이 아비아달이 파면당한 것은 엘리 가계(家系)에 대한 예언(삼상 2:27-36)의 성취로서 아비아달은 이다말 자손 중에서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고, 그 후로는 엘르아살

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2:35;대상6:1-8).

15. **㉠**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벌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 43-46절)

- ㉠** (1) 그 이유는 첫째, 시므이가 솔로몬과 맺은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2)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만 거주할 것을 명하면서 만일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선언한 바 있다.
 (3) 이 선언에 시므이도 동의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므로 인해 서약을 깨뜨렸다.
 (4) 둘째 이유는 다윗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악이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비후림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돌을 던지며 독한 말로 저주한 것을 가리킨다.
 (5)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시므이를 처벌하도록 유언한 바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집행자요 심판자로서 왕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화보자료

여호와를 찬양하는 솔로몬 왕. 아래의 사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12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외국과의 무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등 큰 일을 수행했으나 훗날 종교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11:4-9) 나라를 분열케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11:31).

제 3 장 솔로몬의 지혜

단락구분 1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다 / 2-5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다 / 6-15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 16-28 두 창기(娼妓)의 분쟁에 대한 판결

1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펼쳐되기를 기다리니라

2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주의 빠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 할 수 있리오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1 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

남이 없으리라

13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5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6 때에 창기 두 제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17 한 제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제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18 나의 해산한 지 삼일에 이 제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9 그런데 밤에 저 제집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20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제집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뉘었나이다

21 미명히 내가 내 아들을 찢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 다른 제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제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23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 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 온지라

25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되는 제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르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
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 왕이 대답하여 가르되 산 아들을 저 계집

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28 은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들
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1. **㉠ 본장의 문맥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전장에서는 반란을 일으켰던 역적(逆賊)들을 솔로몬이 완전히 숙청하므로 이제는 안정된 왕국이 되었으며 제 3장에서는 이 왕국의 통치를 위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山堂)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뿐만 아니라 부(富)와 영광도 주셨다.

(3) 사람은 누구나 모든 생활에서 부(富)나 명예보다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후하게 주실 것이다(약 1:5).

2. **㉠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1절)**

㉠ (1) 이것은 솔로몬이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과 더불어 정략 결혼(政略結婚)을 통한 국교(國交)를 맺었다는 의미이다.

(2) 그런데 당시 애굽의 왕들이 외국인에게 그들의 딸들을 주어 결혼시키는 일이 드물었다는 사실을 볼 때 솔로몬의 왕국이 열국 가운데 위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을 강하게 세우셨으며 이것은 미리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다(삼하 7:11,12).

3. **㉠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곳은 어디인가? (3절)**

㉠ (1) 그곳은 기브온 산당(山堂)이었다.

(2)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가량 떨어진 넓은 구릉 지대이며 그곳에 번제단과 회막이 있었다(대하 1:3).

4. **㉠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山堂)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4절)**

㉠ (1) 그것은 기브온 산에 제일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전래되어 내려오던 방법으로 번제단과 회막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이처럼 솔로몬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번제단과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적인 전통을 따랐던 솔로몬의 신앙 자세를 반영해 준다.

(4)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 자세는 오늘날 말씀과 전통 교리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요 4:19-24; 히 11:7; 13:16).

5. **㉠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직접 계시하신 사실이 성경 다른 곳에도 나타나는가? (5절)**

㉠ (1) 하나님께서는 꿈을 종종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밝히는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2)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는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꿈이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해몽자(解夢者)가 필요하였다(창 41:25-36; 단 2:31-45).

(3)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셨다(3:4-15; 창 28:11-16; 욥 33:15, 16).

(4) 한편 신약 성경에는 꿈을 통하여 직접 계시해 준 사실이 6번 나오는데 모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마 1:20-23; 2:12, 13, 19, 20, 22; 27:29).

(5)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다른 계시가 필요 없

다고 선언하고 있다(갈 1:8, 9).

(6)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계시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은 혼동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6. ㉠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지혜로운 마음'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는 뜻이다.
 (2)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지성의 본거지로 여겨졌으며 '듣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3)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지도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 것이다.

7. ㉠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13절)

- ㉠ (1)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11절).
 (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정욕적인 지혜를 구한다(약 3:15).
 (3)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를 구한 것이다.
 (4) 결국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기도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8. ㉠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열왕 가운데서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13절)

- ㉠ (1)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함으로써 통치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경건한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한 것이기 때문에(마 6:33)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참조, 약 4:2, 3).
 (3) 또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을 마친 다음에도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9. ㉠ 솔로몬이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公平)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신 32:4; 롬 7:12).
 (2)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일생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유언을 했다(2:3).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법도에서 떠났으므로(11:1-11) 그 왕국의 영광은 곧 끝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다(12:1-24).

10. ㉠ '수은제' (酬恩祭)란 무엇인가? (15절)

- ㉠ (1) 수은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화목제를 가리킨다.
 (2) 즉 화목제는 드리는 자의 신앙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誓願祭), 자원제(自願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은제는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를 말한다(레 7:15-18).
 (3) 그리고 번제는 제물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지만 수은제는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먹고 즐기게 하는 것이다(레 7:15).
 (4)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제를 드리면서 기뻐하였고 그 제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뻐하게 했다(15절).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으나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빌 4:6, 7; 골 3:15-17).

11. C 솔로몬의 재판 사건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6-28절)

- A (1) 이것은 한 어린 아기를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그 진실성을 가리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기록이다.
 (2) 이 사건에서 의로운 여인은 무한한 기쁨을 얻지만 불의한 여인은 죄악에 대한 형벌과 슬픔을 겪었다.
 (3)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의(義)와 불의(不義)를 반드시 가려낼 것임을 나타내 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은 최후 심판의 광경을 엿볼 수 있으며 그날의 기쁨과 슬픔을 연상(聯想)할 수 있다(요 12:48; 히 9:27).

12. C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28절)

- A (1) 이 사건은 재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주시해 보았던 것이다.
 (2)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하급 재판 기관에서 다루었을 것이 분명하며 그들이 판결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의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불의한 일을 행한 자가 솔로몬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4) 그 결과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큰 명성을 얻었고 그의 나라는 평안한 왕국이 될 수 있었으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화보자료

솔로몬의 재판. 옆의 사진은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다투는 것을 솔로몬이 현명한 지혜로써 판결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도 뛰어난 것이었으니(28절)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을 정도였다(4:31-34).

제 4 장 솔로몬 왕국의 국위(國威)

단락구분 1-6 솔로몬 왕의 신하들 / 7-19 왕실의 식량을 준비하는 관리들 / 20-28 이스라엘 왕국의 평안과 국력 신장(國力伸張) / 29-34 솔로몬에 대한 소문

1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라는 제사장이요
 3 시사의 아들 엘리호렘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5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6 아히살은 궁내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7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열 두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일 년에 한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8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9 마가스와 사알빔과 벵세메스와 엘론벵한난에는 벵데겔이요
 10 아돗못에는 벵헤셋이니 소고와 헤벨은 땅을 저가 주관하였으며
 11 들 높은 땅은 지방에는 벤아비 나담이니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12 다아낙과 므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벵스안은 땅은 아힐못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벵스안에서부터 아벨므플라에 이르고 욱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13 길르앗 라못에는 벵게벨이니 저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아일의 모든 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늦빛장 있는 큰 성읍 욱심을 주관하였으며
 14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담이요
 15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16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요
 17 잇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8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19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20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22 솔로몬의 일 일본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욱십 석이요
 23 살진 소가 열이요 초장의 소가 스물이요 양이 일백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24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담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리므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바 되매 저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25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더라
 26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더라
 27 그 관장들은 각기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짚을 그 말의 있는 곳으로 가져 왔더라
 29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와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흔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 저가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더라
 33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34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1. **㉠** 본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솔로몬 왕이 인재를 등용하여 신하로 삼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12관장을 세움으로써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또한 본장은 솔로몬 왕실의 풍요로움과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사실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
 (3)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아래 평화가 임한 것은 다윗의 자식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건고케 하시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삼하 7:12-14).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며(삼상 3:19)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한다(참조, 딤후 3:14).

2. **㉡** 솔로몬 왕국에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2, 4절)

- ㉠** (1) 제사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이 단어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예를 들면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다(삼하 8:18)고 기록되었고 야일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의 제사장이었다(삼하 20:26)고 기록되었다(개역 성경에는 모두 '대신'이라고 번역됨).
 (3)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자들이 꼭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본장에 기록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의 대제사장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독의 손자(대상 6:8, 9)인 아사리아이며 사독은 이때에 상당히 연로하였기 때문에 그의 직무를 손자에게 맡겼다.
 (5) 그리고 사독은 연로하였지만 아직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대제사장이라 칭하였으며 아비아달은 파면당하기는 했지만(2:26, 27) 대제사장이란 칭호는 계속 붙여 주었다.

3. **㉢** 본장에서 제사장을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열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솔로몬 시대는 성전 건축과 더불어 종교의 부흥기를 맞았던 시대였으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관들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신하들보다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다.
 (2) 이와 같은 솔로몬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음을 나타낸다.
 (3) 신정 국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代行者)였으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가 중요한 위치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4)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통치자들이 사람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뒤에 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5)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모든 국가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참조, 행 17:24).

4. **㉣** 솔로몬 왕이 열 두 관장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열 두 구역으로 나누고 관리장 아사리아(1절에 기록된 제사장 아사리아와 다른 사람임)의 감독하에 열 두 관장을 두어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2) 이 지역들은 세금 공출(供出)을 목적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지역은 왕실을 위하여 일년에 한 달씩 식물(食物)을 예비하였다.

5. **㉤** 솔로몬 왕국의 열 두 관장이 다스리는 행정 구역을 구분하여 열거하라 (8-19절).

- ㉠** (1)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열 두 관 장	행 정 구 역	관계된 지파
벤훤(8절)	에브라임 산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세겜 건너편까지	에브라임 ³⁾
벤데겔(9절)	마가스, 사알빔, 벤세메스, 엘론베헤난 성읍. 이곳은	단

	읍바 동쪽으로 단 지파의 영지에 위치	
벤헤셋 (10절)	아홉봇을 중심으로 소고와 헤벨 온 땅, 사론 평야라고 불리는 지역	므낏세 반 지파
솔로몬의 사위 벤아비나답 (11절)	돌(Dor) 높은 땅 전역(全域) 북의 베니게와 남의 블레셋 사이에 있는 땅	
아힐롯의 아들 바아나 (12절)	다아낙과 므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근처에 위치한 벨소안 전역	
벨게벨 (13절)	길르앗 라못 곧 요단 동편 므낏세 반 지파의 영지	므낏세 반 지파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 (14절)	압북 강변에 위치한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역시 요단 동편	갓
솔로몬의 사위 아히마아스 (15절)	갈릴리 바다 서쪽 일대 납달리 지파의 영지로서 열 두 영지 중 최북단에 위치	납달리
후세의 아들 바아나 (16절)	아셀과 아룻 지방, 납달리 지파 영지의 서쪽에 위치	아셀, 스불론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17절)	잇사갈 지파의 영지로서 이스라엘 평원의 대부분을 포함	잇사갈
엘라의 아들 시므이 (18절)	베냐민 지파의 영지로서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우리의 아들 길르앗 (19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길르앗 땅 사해 동편에 위치하는 지역	르우벤

(2) 이상의 지역들은 유다의 영지가 제외된 예루살렘 이북의 지역에만 위치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 구역은 유다를 제외한 열 한 지파의 영지와 관계되고 있다.

(3) 또한 이들 지역은 이전에 분할된 각 지파의 지방(수 14:1-19:51)을 중심으로 구분되었지만 그 지파들의 경계선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6. **㉠** 솔로몬 왕국의 영토에 대한 기록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1) 솔로몬 왕국의 영토는 하수(河水), 즉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큰 성읍이었던 딤사로부터 애굽 국경 부근인 가사 남쪽 지방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2) 이것은 일찌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참조, 창 17:8).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 5:18).

7. **㉠** 솔로몬 왕국의 왕실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얼마나 되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2, 23절)

㉠ (1) 솔로몬의 가족은 거대했다. 그는 700명의 아내들과 300명의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11:3). 그러므로 그가 낳은 자녀들의 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2)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이 밀가루 90석이라고 하였는데(22절) 개역 성경에서 '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코르>라는 단위이다. 이 <코르>라는 단위를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에 90코르는 약 19,800ℓ이다.

(3) 그밖에도 살진 소, 초장의 소, 양,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 등이 식량으로 사용되었다(23절).

(4)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 왕국의 궁중 생활의 호화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겸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 것이다(3:11-13).

8. **㉠**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5절)

- ㉠** (1)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로서 이 나무들 아래서 살았다는 것은 흉년이나 전쟁으로 인한 양식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다.
 (2) 이런 표현은 이상적인 생활 조건을 가리키는 풍자적인 표현으로서(미 4:4) 백성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솔로몬의 평화 시대는 메시아의 강림으로 도래할 완전한 평화를 상징한다(참조, 미 4:4; 스 3:10; 계 21:23-26).

9. **㉠** 솔로몬 왕은 얼마나 많은 군병(軍兵)과 병기(兵器)를 준비하였는가? (26-28절)

- ㉠** (1) 솔로몬 왕은 병거(兵車)를 위한 말 40,000필과 마병(馬兵) 12,000명 그리고 많은 군량(軍糧)을 준비하였다.
 (2) 이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였다.
 (3)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처럼 평화로운 시대에 많은 군병과 병기를 준비한 부국 강병책(富國強兵策)은 하나님의 율법(신 17:16)을 거스리는 정책이었다.
 (4)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옳고 좋은 일 같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는 모래 위의 집과 같이 결국 쉽게 무너지게 된다(참조, 잠 16:25).

10. **㉠** 솔로몬이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등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낫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31절)

- ㉠** (1) 이들은 모두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후손들이다(참조, 대상 2:6).
 (2) 에단과 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읊은 자들(시 88:1; 89:1)로서 다윗에 의해 음악하는 자들로 선택되었던 사람들이다(대상 15:17, 19). 한편 다르다는 '다라'로 불리기도 하는데(대상 2:6),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3) 이처럼 이들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말한다.

11. **㉠** 솔로몬의 잠언과 노래는 현재까지 얼마나 전해져 오는가? (32절)

- ㉠** (1) 솔로몬은 잠언 3,000을 지었으며 노래는 1,005편을 지었는데 그중의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진다.
 (2)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의 '잠언'이다.
 (3) 또한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몇 부분인 '아가서'와 시편 2수(72, 127편)가 보존되어 있다.

12. **㉠**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32, 33절)

- ㉠** (1) 지혜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중의 일부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2) 솔로몬은 철학자요 시인이며 또한 동물 학자인 동시에 식물 학자였다.
 (3) 그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일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로 이끈다(참조, 딤후 3:15).

13. **㉠** 오늘날 참다운 지혜는 무엇이며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 ㉠** (1)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잠 1:7).
 (2)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고 그의 보낸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3)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전 1:27).

제 5 장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단락구분 1-6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교역(交易)을 제의하다 / 7-12 솔로몬과 히람이 교역을 실시하다 / 13-18 성전을 지을 솔로몬의 역군(役軍)들

1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2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3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하오니

6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샅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

지라

9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공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10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주매

11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공정의 식물로 밀이만 석과 맑은 기름 이십 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12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3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삼만이라

14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일만 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5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칠만 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팔만 인이며

16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삼천 삼백 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7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들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18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교훈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솔로몬 왕이 많은 재물(財物)과 역군(役軍)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목재(木材)와 돌들을 준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미 명령한 일이며(삼하 7:13) 다윗 왕 때부터 성전 건축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였던 것이다(대상 29:1-19).
- (3) 모든 힘과 지혜와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교훈해 준다.

2. ㉠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 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절)

- ㉠ (1) 두로 왕 히람은 본래 다윗 왕의 친구로서 이제 솔로몬 왕이 즉위하자 우호 관계를 계

속 유지하기 위해 사신(使臣)을 보내왔다.

- (2)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首都)로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이다. 또한 이전에는 시돈이 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돈 사람이라고 불리었다(6절).
- (3) 그리고 두로는 레바논 산이 있어서 백향목이 많이 재배되었다. 그러므로 시돈 사람들은 건축을 위한 목재(木材)를 썬 것과 배의 건조(建造)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 (4)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 후원하였으며(대상 14:1)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후원하였다(5:7-12).

3. **㉠**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므로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 (2)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가 군인으로 있을 때에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대상 22:8; 28:3).
- (3)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전의 영적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
- (4)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평화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에게 넘겨졌으며 솔로몬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인 줄 깨닫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4. **㉠**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가 평화로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가? (4절)

- ㉠** (1)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고백하였다.
- (2)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 성대(太平聖代)를 누리게 된 것을 자기 부친 다윗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3) 또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한 솔로몬의 말은 그의 부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요인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태평한 시대를 허락하신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다.
- (5)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평화와 부요를 허락해 주심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이유가 자신의 환상적인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 (2) 즉 일찌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친 다윗 왕에게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말씀에 근거한 사명은 참으로 고귀하고 분명한 것이다. 성도들은 욕심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달은 후 분명한 사명감 가운데 헌신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 2; 빌 2:3).

6. **㉠** 이방 두로의 왕 히람의 처신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 (1)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크게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 (2) 사실 그들은 서로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경쟁의 대상이었으며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운 상대였다(참조, 스후 9:2-5).
- (3) 그러나 히람 왕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 (4)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웃의 번영에 대하여 기뻐하기보다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마 19:19)을 명심해야 한다.

7. **㉠** 이방의 왕과 일꾼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12절)
- ㉠** (1) 이방인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은 장차 메시야가 오신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고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한다(엡 2:11-18).
- (2) 또한 이것은 이사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이방인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참조, 사 60:10, 13)을 보여 주고 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방의 왕과 기술자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 (4) 예수님께서 오신 후 이 모든 예표적 의미가 성취되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으며(갈 2:8, 9)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 사역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8. **㉠** 솔로몬이 일꾼들을 한 달 동안씩 교대로 레바논 산중에 파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을 선정하여 한 달에 1만 명씩 레바논 산중에 보냄으로써 한 달 동안의 노역을 마치면 두 달 동안은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다.
- (2) 이것은 히브리인의 종교가 가정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징집 노무 중에 가정이 황폐될 것을 우려한 솔로몬의 정책이었다.
- (3)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을 통하여 위로와 안식을 얻고 기본적인 심성과 예절을 갖추게 되므로 가정 생활이 매우 중요하며 각 가정들이 평화로울 때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9. **㉠**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한 일꾼들은 몇 명이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15, 16절)
- ㉠** (1) 별목할 일꾼 3만 명, 석공 8만 명, 담군(집군) 7만 명 그리고 관리(官吏) 3,300 명 등 모두 183,300명이다.
- (2) 이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대하 2:17, 17).
- (3) 이와 같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을 참여시킨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 사실의 예시적 처사였다(참조, 마 8:11-13).
- (4) 이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가리킨다.
10. **㉠** '성전의 기초석'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졌던 성전의 터는 모리아 산이었는데(대하 3:1) 이곳은 아브라함이 1000여 년 전에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곳이다(창 22:2).
- (2) 이 기초석들 중에서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오말(Omar)에 있는 하람(Haram) 사원의 동남향 담벽의 돌들이 바로 그때의 기초석들이다(Porter, Handbook, p. 115).
- (3) 이 기초석은 신약 시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마 21:42).
- (4) 또한 기초석이 된 그리스도는 귀하고 견고한 돌이며(사 28:16) 영적으로 성전의 산돌이시다(벧전 2:4, 5).
11. **㉠**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돌을 다듬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18절)
- ㉠** (1) 그발 사람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하였다.
- (2) 그발이란 곳은 베이루트(Beirut) 북쪽 30km 지점인 레바논 산 기슭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언덕 위의 베니게 도시였다(수 13:5).
- (3) 이 지방 사람들은 당시에 조선(造船)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로서(겔 27:9) 그들의 뛰어난 손재주로 성전 건축 공사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되었다.

제 6 장 성전 건축의 완성

단락구분 1-10 성전 외곽의 건축 / 11-13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 14-22 성전 내부의 장식 / 23-28 내소(內所) 안에 그룹들을 만들어 두다 / 29-36 문설주와 문짝을 만들다 / 37-38 성전의 건축 기간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 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년 시브월 곧 이 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육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삼십 규빗이며

3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4 전을 위하여 불박이 교창을 내고

5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6 하층 다락의 광은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여섯 규빗이요 제 삼층 다락의 광은 일곱 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7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8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 삼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9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10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다섯 규빗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결하게 하였더라

11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4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5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

로 전 마루를 놓고

16 또 전 뒤편에서부터 이십 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17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사십 규빗이며

18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19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20 그 내소의 속이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21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름 금으로 입혔더라

23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십 규빗이라

24 한 그룹의 이 날개는 다섯 규빗이요 저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 부터 저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25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26 이 그룹의 고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27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껴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28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29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30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1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분지 일이요

32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40 열왕기상 6장

33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34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쪽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쪽으로 접게 되었으며

35 그 문짝에 그릅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 맞게 하였고

36 또 다듬은 들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37 제 사 년 시브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38 제 십 일 년 불월 곧 팔 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역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칠 년이었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 동안에 걸쳐 완성시키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B.C. 966-959).

(2)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규격을 맞추어 지었는데(대상 28:11-19) 그 크기가 모두 완전을 상징하는 10의 배수로 지어졌다.

(3) 성전이 완성됨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지가 되고 종교적인 수도(首都)가 되었다.

2. ㉠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1절)

㉠ (1) 출애굽 사건이 있은지 480년이 지난 솔로몬 왕 4년 시브월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런데 솔로몬 왕 4년은 B.C.966년이고 시브월은 두번째 달인 4, 5월이다.

(3)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출애굽 연대를 잡는다면 B.C.1446년경이 된다.

(4) 이와 같이 본귀절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의 연대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귀절이다.

3. ㉠ 성전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성전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고(삼하 7:13) 설계되었다(대상 28:11-19).

(2)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것과 같다(출 25:9, 40).

(3) 성전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요 2:21). 또한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며(엡 2:19-22) 성도들 각 개인을 상징하기도 한다(고전 3:16; 6:19; 고후 6:16).

4. ㉠ 성전 외부의 크기는 어떠한가? (2절)

㉠ (1)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었다.

(2)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의 길이를 표준으로 한 단위인데 보통 약 45.6cm이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는 보다 긴 규빗이 사용되었는데 그 표준 길이가 약 53cm이었다(대하 3:3).

(3) 그러므로 성전의 길이는 27-32m, 너비는 9-11m, 높이 13-16m였을 것이며 그 성전의 크기, 구조, 모형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다(대상 28:11-19).

5. ㉠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2-10절).

㉠ (1) 크기는 다음과 같다(성전 1규빗은 약 53cm임).

구 분 \ 비 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전체의 길이	40 규빗 (약 21.2m)	80 규빗 (약 42.4m)
" 너비	20 규빗 (약 10.6m)	40 규빗 (약 21.2m)
" 높이	15 규빗 (약 7.95m)	30 규빗 (약 15.9m)
성소의 길이	20 규빗 (약 10.6m)	40 규빗 (약 21.2m)
" 너비	10 규빗 (약 5.3m)	20 규빗 (약 10.6m)

“ 높이	10규빗(약 5.3m)	20규빗(약 10.6m)
지성소의 길이	10규빗(약 5.3m)	20규빗(약 10.6m)
“ 너비	10규빗(약 5.3m)	20규빗(약 10.6m)
“ 높이	10규빗(약 5.3m)	20규빗(약 10.6m)
현관의 길이	10규빗(약 5.3m)	20규빗(약 10.6m)
“ 너비	5규빗(약 2.65m)	10규빗(약 5.3m)

- (2) 또한 계획과 배열에 있어서 두 구조물은 일치한다. 즉 둘 다 동편을 향해 있고 각기 현관, 성소,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 (3) 솔로몬의 성전은 건물 전체와 부속물들의 크기가 모세의 성막에 비하여 정확하게 두 배이다.
- (4)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식양(式樣)대로 지은 것이다(출 25:9; 대상 28:19).

6. **㉠ 성전의 타락에 골방들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이 골방들은 거룩한 방으로 그 용도가 매우 중요하였다.
- (2) 제사장들이 지성물들을 여기서 먹고, 제사드리기 위한 지성물들을 여기에 보관하였던 것이다(참조, 켈 42:13, 14).
- (3) 또한 이 골방은 모두 30개로서(켈 41:6)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잠을 자며 ‘밤에 여호와 의 집에서’ 봉사하던 곳이다(시 134:1).

7. **㉠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성전을 건축할 때에 들을 뜨는 곳에서 다듬는 일을 끝내고 성전에 와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였다.
- (2)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절대적으로 거룩성이 유지되어야 했으므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금지되었다(참조, 대상 22:8).
- (3) 이러한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지를 가르쳐 준다(시 131:1, 2).

8. **㉠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다시 임했던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1-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격려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한 말씀(3:14)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 (2) 그것은 솔로몬이 벌써 경미(輕微)한 타락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 잘 하도록 격려와 충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9.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律例)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조건부 축복이다.
- (3)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기(삼상 15:22) 때문이며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요 14:21).

10.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3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다(창 28:15; 신 20:1).

(2) 이러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11:38).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요 14:18; 히 13:8).

11. **㉠ 성전 내부의 벽을 백향목 널판으로 입힌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1) 성전은 돌로 건조되었지만 그 성전 내부의 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입히고 거기에 박과 핀 꽃을 새겼으며 그 위를 금으로 입혔다(15, 18, 22절).

(2) 이러한 장식은 성전 내부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밈과 동시에 소리의 자연스러운 전달을 위한 일종의 방음 장치와 같은 것이다.

(3) 이런 점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전들과 다르다.

12. **㉠ 성전의 지성소를 정금으로 입힌 것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9-22절)**

㉠ (1)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의 두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전체의 1/3, 성소는 2/3를 차지하였다(16절).

(2) 또한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다(19, 20절).

(3) 이와 같이 지성소 전체를 정금으로 입힌 것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며(참조, 히 11:6; 벰전 1:7)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황금으로 지어진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계 21:16-18).

13. **㉠ 성전의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1) 성전의 지성소는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되는 정육면체로 만들었다.

(2) 이는 정육면체가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겔 48:20; 계 21:16).

(3)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이다.

14. **㉠ 성전의 내소 안에 그룹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23-28절)**

㉠ (1) 성전의 내소 안에는 두 그룹이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감람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견고성과 내구성 때문이었다.

(2) 각 그룹은 높이가 2규빗이었으며 각 날개가 5규빗에 달하였다.

(3) 한 그룹의 날개는 그 방 중앙에서 다른 그룹의 날개와 맞닿았고 또 다른 날개들은 각각 맞은편 벽에 닿아서 결국 그들의 네 날개는 지성소의 전공간을 메웠다(20규빗).

(4)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법궤를 향하여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따라서 법궤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놓여 있는 형상이 된다.

(5) 한편 이 그룹들은 절할 대상이 아닌 단지 거룩한 천사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 준다.

15. **㉠ 성전의 안쪽 벽면에 새겨진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1) ‘그룹’은 모든 동물의 생명에 대한 상징이다. 그룹은 천사들 중 한 종류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주로 동물의 형상, 즉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와 사람의 형상으로 ‘그룹’은 모든 동물의 생명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동물의 세계를 대표하는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의 형상으로 새겨졌고(겔 10:14; 계 4:7) ‘생물’이라고 불리워지기 때문이다(겔 1:5, 13, 15; 10:15).

(2) 그룹이 동물을 상징하는데 비해 ‘종려’는 식물의 생명을 상징한다. 종려나무는 ‘식물 세계의 왕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계를 대표할 만한 나무이다(pulpit 주석).

(3) 마지막으로 ‘핀 꽃’은 고대로부터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일반적인 상징이 되어왔다.

- (4)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의 안쪽 벽면에 새겨진 ‘그룹’과 ‘중려’와 ‘핀 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충만함을 나타내어 준다.
- (5) 성육신하여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 예수께서는(요 2:21)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10:10)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이루셨다(엡 1:22, 23).

16. **㉠**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하였는가? (31-3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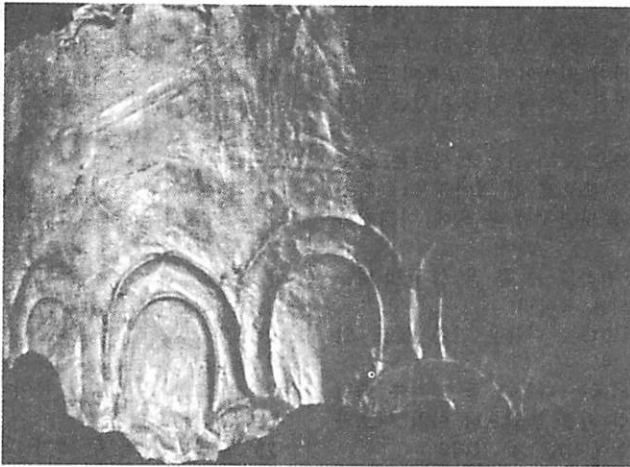
- ㉠** (1)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감람목으로 만든 두 문짝으로 구분지었다.
 (2)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의 형상을 수놓은 휘장도 함께 있었다(대하 3:14).

17. **㉠** 성전 건축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38절)

- ㉠** (1)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지 7년 반만인 솔로몬 왕 11년 불 월에 성전이 완성되었다.
 (2) 그런데 솔로몬 왕 11년은 B.C.959년이고 불 월은 오늘날의 10, 11월이다.
 (3) 이와 같이 7년 반만에 성전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빠른 것으로 많은 인력(人力)과 물질을 들여 성전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가장 존엄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대(最大), 최선(最善)의 노력을 기울였다.

화보자료

기둥을 싸는 금박(金箔). 아래의 사진은 B.C. 8 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박으로서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마도 솔로몬의 성전은 아래와 같은 금박으로 장식되었을 것이다.



칠 년에 걸친 성전 건축은(38절) 솔로몬의 정성과 풍부한 물질로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비로소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시작하였다(7:1).

제 7 장 솔로몬 왕국의 건축 및 성전의 내부 시설

단락구분 1-12 솔로몬 왕의 궁전을 건축하다 / 13-14 두로의 기술자 히람을 데려오다 / 15-22 두 돛 기둥 / 23-26 돛 바다 / 27-39 돛 물두멍과 그 받침 / 40-47 돛 기구들 / 48-51 금 기구들

1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십 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2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일백 규빗이요 광이 오십 규빗이요 고가 삼십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 기둥 위에 있는 사십 오 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열 다섯이요

4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6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오십 규빗이요 광이 삼십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7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8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 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9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켜는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10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십 규빗 되는 돌과 여덟 규빗 되는 돌이라

11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12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13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 저는 남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돛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돛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15 저가 돛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십 팔 규빗이라 각각 십 이 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16 또 돛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다섯 규빗이며

17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땅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18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19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20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걸 끈 그 머리의 공갈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이백이 줄을 지었더라

21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23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24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25 그 바다를 열 두 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26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 만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빛을 담졌더라

27 또 낫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네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요 고가 세 규빗이라

28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측 가운데 판이 있고

29 변측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측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30 그 받침에는 각각 네 낫바퀴와 낫축이 있고 받침 네 발 밑에는 어께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께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31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32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33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테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34 받침 네 모퉁이에 어께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께는 받침과 연하였고

35 받침 위에 등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36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환 모양이 있더라

37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38 또 물두멍 열을 낫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빛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

두멍이 하나씩이더라

39 그 받침 다섯은 전 우편에 두었고 다섯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40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41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42 또 그 그룹들을 위하여 만든바 매 그룹에 두 공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사백 석류와

43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의 열 물두멍과

44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 두 소와

45 술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낫으로 만드니라

46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곳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47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낫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48 솔로몬이 또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49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계며

50 또 정금 대접과 불집계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읊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들썩거리와 전 곧 외소 문의 금들썩거리라

51 솔로몬 왕이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와의 전 공간에 두었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교훈을 말해 보라.

- ㉠ (1) 전장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였고 이제 본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과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만든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 (2) 솔로몬은 멀리 두로에서 뛰어난 기술을 히람을 데려다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13, 14절).
- (3)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자신의 궁전을 그 다음에 짓는 모습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참조, 마 6:33).

2. ㉠ 솔로몬 왕의 궁전을 건축할 때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렸는가? (1절)

- ㉠ (1) 솔로몬 왕은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여 완성하였다. 따라서 성전 건축까지 합하면 20년에 걸친 건축 공사였다.
- (2) 궁전의 건축이 성전의 건축보다 오래 걸린 이유는 궁전이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건축이었기 때문이다(2절).

(3) 또한 레바논 나무의 궁(2절), 낭실(6절), 재판정(7절), 솔로몬의 거처할 궁(8절), 바로의 딸을 위한 집(8절)까지 포함하는 건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3. **㉠ 솔로몬 궁전의 주요 재료는 무엇인가? (2-12절)**

- ㉠** (1) 솔로몬 궁전은 레바논 나무와 다듬은 돌로 지어졌다.
 (2) 여기서 레바논 나무는 레바논 산에서 가져온 백향목이며, 또한 돌은 귀하고 큰 돌을 다듬었는데 저자는 건축 재료에 대하여 귀하다는 말을 세 번 언급하였다(9-11절).
 (3) 이러한 귀한 재료들을 볼 때 솔로몬의 궁전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이것은 솔로몬의 생활이 부유하고 영화로웠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3:11-13).

4. **㉠ ‘레바논 나무의 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2절)**

- ㉠** (1) ‘레바논 나무의 궁’은 솔로몬 궁전의 주요 건물로서 의식(儀式)을 행하는 큰 홀이었으며 접견실(接見室)이었다.
 (2) 왜냐하면 보좌는 재판하는 낭실에 있었고(7절) 솔로몬 왕이 거처하는 궁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8절).
 (3) 또한 ‘레바논 나무의 궁’에는 병기고(兵器庫)가 있었으며(10:16, 17), 경호원들의 거처(居處)가 있었다(14:27, 28).

5. **㉠ 솔로몬 왕궁의 주요 건물들과 그 용도는 무엇인가? (2-8절)**

- ㉠** (1) 솔로몬 왕궁의 주 건물로써 병기고가 있고 의식을 행하는 큰 홀이 있고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이 있었다(2절).
 (2) 또한 기둥들과 지붕만 있으며 측면의 벽이 비어 있는 거대한 낭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레바논 나무의 궁과 재판하는 낭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6절).
 (3) 또한 솔로몬이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낭실이 있었는데(7절) 그곳에는 금으로 입힌 상아 보좌가 있었다(10:18-20).
 (4) 또한 재판하는 낭실 북쪽의 담으로 둘러 막은 독립된 구내에 솔로몬 왕이 거처하는 궁이 있었으며 그 북서쪽 모퉁이에 왕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한 낭실이 있었다(8절).
 (5) 이 모든 것들은 호화롭게 지어졌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 재산의 풍부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었다(10:23).

6. **㉠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솔로몬이 데려온 기술자는 누구인가? (13, 14절)**

- ㉠** (1)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와 두로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다.
 (2)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 지파의 여인이었는데(대하2:14)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과 첫번째 결혼을 하였으나 그 남편이 죽었으므로 납달리 지파의 과부로 불리웠으며 그 후에 다시 두로 사람과 결혼하여 히람을 낳았다.
 (3) 히람은 솟 세공과 조각의 명수(名手)로서 두로 왕 후람(히람)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선발하여 보낸 자이다(대하2:11-14).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는 가장 고상하고 최선의 선물 중의 하나인 기술을 세상의 안락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7. **㉠ 솟 기둥의 크기는 어떠한가? (15, 16절)**

- ㉠** (1) 그 기둥 자체의 높이가 18규빗(약 9.54m)이고 꼭대기에는 높이 5규빗(약 2.65m)의 주두(柱頭)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의 높이는 23규빗(약 12.19m)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1규빗은 약 45.6cm이지만 성전 규빗은 보다 긴 규빗(약 53cm)을 사용하였다.
 (2) 또한 그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약 6.36m)이었으며 그 기둥의 속은 비어 있었고 두께는 네 손가락의 넓이었다(참조, 렘 52:21).

8. **㉠** 기둥 꼭대기에 새겨진 '석류'와 '백합화'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18, 19절)

- ㉠** (1) '석류'는 그 내용이 겉보다 더욱 뛰어난 것을 상징하며 '백합화'는 순결과 생명을 상징한다.
 (2) 이것은 주님께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가식적(假飾的)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진실하고 순결할 것(시 51:6)과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을 간직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것을 나타낸다.

9. **㉠** 두 돛 기둥의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이 기둥들은 성전 앞에 독립적으로 세워졌으며(대하 3:17)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였다.
 (2) 이 이름들의 뜻은 성전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3) 이러한 성전 기둥들의 이름은 성전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세움을 입는 집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참조, 마 16:18; 행 20:28; 요일 5:18).

10. **㉠** 돛 바다의 크기는 어떠한가? (23절)

- ㉠** (1) 이 돛 바다는 직경이 10큐빗(약 5.3m)이고 높이가 5큐빗(약 2.65m)이며 둘레가 30큐빗(약 15.9m)이었다.
 (2) 또 그 두께는 한 손 넓이만하다고 기록되었으므로 약 15.24cm이었고 또 거기에 2,000밭(1밭은 36.44ℓ 로서 총 용량은 72,880ℓ 가 됨)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

11. **㉠** 돛 바다의 용도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 (1) 돛 바다는 성전의 안뜰에 위치했으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 만든 거대한 돛 대야이다(대하 4:6).
 (2)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 불결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의식적인 의미를 지닌다.
 (3) 결국 이러한 의식적 경결을 위해 마련되었던 돛 바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씻는 작업(죄씻음)이 있어야 하며 그 작업을 이루는 돛 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일깨워 준다(참조, 요일 1:5-7).

12. **㉠** 돛 바다를 바치고 있는 열 두 소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소는 봉사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이다(레 1:3; 삼상 6:14).
 (2) 그러므로 열 두 소가 돛바다(예수 그리스도의 죄씻음의 사역을 상징)를 바치고 있는 것은 사유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암시한다.
 (3) 특별히 소의 수자를 나타낸 '12'는 히브리 사고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봉사와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나타낸다(참조, 롬 12:1).

13. **㉠** 돛으로 만든 받침의 변측 가운데 새겨진 그림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29절)

- ㉠** (1) 그 받침의 변두리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새겨져 있다.
 (2) '사자'는 용맹성을 '소'는 헌신을, '그룹'은 하나님 섬김을, '화환 모양'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상징한다.
 (3) 이와 같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듯이 마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데에 있다(참조, 시 51:7).

14. **㉠ 물두멍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38, 39절)**
㉠ (1) 이것들은 직경이 4 규빗(2.12m)이며 한 물두멍에 40밧(1 밧이 36.44ℓ 이므로 총량은 1457.6ℓ 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대야들이다.
 (2) 이것들은 제단 양편에 다섯 개씩 놓아서 제사용 동물들의 내장과 각 부분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대하 4:6).
 (3) 또한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릴 때나 여호와 앞에 화제(火祭)를 드릴 때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출 30:17-21).
15. **㉠ '술과 부삽과 대접'의 용도는 무엇인가? (45절)**
㉠ (1) 이 기구들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기구들이다.
 (2) 먼저 '대접'은 제물에서 나온 피를 담는 그릇이고, '부삽'은 제물을 태운 재를 긁어 모으는 데 사용되는 기구이고, '술'은 부삽으로 모은 재를 담아서 버리는 그릇이다.
16. **㉠ 히람이 놋 기구들을 주조(鑄造)한 곳은 어디인가? (46절)**
㉠ (1) 그곳은 요단 평지의 숙곳과 사르단 사이이다.
 (2) 놋을 부어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으로 형(型)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흙이 많은 고장인 요르단 골짜기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17. **㉠ 솔로몬 왕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금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48-50절)**
㉠ (1) 이것들은 주로 성소에 관계된 기구들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것이다.
 (2)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계 21:18, 21).
18. **㉠ 솔로몬이 성전에 보관한 '다윗이 드린 물건'은 무엇인가? (51절)**
㉠ (1) 그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거두었던(대상 29:6-9) 귀금속들이었다.
 (2) 또한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귀금속이다(삼하 8:9-12).
 (3)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으며 성전의 공간에 보관하였다(51절).

연구자료

성경에 나오는 길이의 기본 단위인 규빗

규빗은 성경에 나오는 길이의 기본 단위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척도는 애굽의 계통을 따르고 있는데, 1규빗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 그 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빗 척도는 없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규빗을 사용했다. ①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은 약 45.6cm 되는 보통 규빗(2-6절), ②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약 52.3cm의 왕실 규빗이 있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 건축 당시에 사용되기도 했다(왕상 6:2; 7:2). 그리고 ③ 에스겔이 묘사했던 약 53.2cm 되는 에스겔의 규빗이 있었다(겔 40:5).

제 8 장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단락구분 1-9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 10-11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 12-21 성전 봉헌함을 감사하다 / 22-53 솔로몬의 기도 / 54-61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다 / 62-66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다

1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매어 옮기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2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칠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4 여호와와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5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6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7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9 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2 그 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감람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제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4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15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

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17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다 내가 여호와와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21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와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22 솔로몬이 여호와와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 하늘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25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좃가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28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1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나

32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33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34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36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7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매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론하고

38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40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

이다

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퍼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4 주의 백성이 그 전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대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46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진 후에

47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대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50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1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52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대로 들으시옵소서

53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54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55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56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5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58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59 여호와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60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 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지이다

62 이에 왕과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

호와 앞에 회생을 드리니라

63 솔로몬이 화목제의 회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만 이천이요 양이 십 이만 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64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와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5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 칠 일 함 십사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66 제 팔 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성전 봉헌의 의미를 말하라.

㉠ (1) 본장에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시온 산에서 모리아 산에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 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奉獻)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오랫동안 광야에서 유리(流離) 하던 언약궤가 이제는 영구한 건물인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었는데 솔로몬 왕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3) 이와 같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제사드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참조, 출 19:5, 6).

2. ㉠ 언약궤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1 절).

㉠ (1) 언약궤는 성경에서 증거궤(출 30:6), 여호와와 의 궤(수 4:11), 하나님의 궤(삼상 3:3), 주의 능력의 궤(대하 6:41) 등으로 불리웠다.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궤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출 25:10-22).

3. ㉠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1 절)

㉠ (1) 언약궤는 여호와와 율법과(출 25:16, 21) 여호와와 의 거룩하심을 상징한다(삼상 6:19-21).

(2)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궤를 잘 보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의식을 가져야 했다(출 25:22).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신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천국을 상징하고(계 11:19)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므로(마 28:20) 언약궤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4. ㉠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두 소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절)

㉠ (1)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은 각 지파와 가문(家門)의 대표자들로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참조, 수 23:2).

(2) 그들은 다윗 왕 때에도 성전 건축을 의논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대상 28:1)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데에도 모두 동원되었었다(대상 29:6-9).

52 열왕기상 8장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소집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는 행사에 온 백성이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4) 이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솔로몬의 정책이었다.

5. **㉠**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때는 언제인가? (2절)

- ㉠** (1) 이때는 성전이 완공된 지 11개월 후인 에다님 월, 즉 7월 절기 때였다(6:38).
- (2) 7월 절기는 장막절(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7일간)을 앞둔 7일간(유대 달력 8일부터 14일까지)을 말한다(레 23:33-36).
- (3) 그러므로 성전 봉헌식은 장막절을 앞두고 7일 동안 거행되었는데(대하 7:8-10) 이것은 휴식을 얻지 못한 언약궤가 안식처를 얻은 중요한 행사였다.
- (4) 당시의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였으므로 장막절을 앞두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시킨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 (5) 즉 이 모든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강조하는 두 사건의 만남이다(참조, 요 16:33).

6. **㉠** 언약궤를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8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아무나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은밀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민 4:15).
- (2)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그룹들이 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출 25:22).
- (3) 이와 같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삼상 4:21, 22; 쥬 43:7) 부정된 인간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레 16:2).

7. **㉠** 본서의 저자가 책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고 기록한 말에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 성전이 훼파되기 전의 사람이었음을 말해 준다.
- (2)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때(B. C. 586)에 무너졌다.
- (3) 그러나 본서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 생활을 보낸 후 귀환한 때(B. C. 562) 이후에 기록되었다(본서의 서론 문 3을 참조하라).
- (4)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는 B. C. 586년 이전부터 살던 사람으로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시대까지 언약궤의 책가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8. **㉠**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는가? (9, 21절)

- ㉠** (1)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그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출 25:16; 40:20; 신 10:5).
- (2) 이 계명들은 모세가 호렙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새겨 주신 것이다(출 24:12; 32:15, 16; 34:28, 29).
- (3) 그리고 얼마동안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두 돌판과 함께 있었다(히 9:4).
- (4)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삼상 4:11-22) 빼앗긴 후 금항아리와 지팡이는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9. **㉠** 그룹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인가? (10절)

- ㉠** (1) 이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출 33:9).
- (2)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서 인정하시고 흡족해 하심을 나타

내는 표적이기도 하다(출 40:34, 35; 대하 5:11-14).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므로(행 22:14, 15) 성도들은 그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마 7:21; 12:50).

10. **㉠** ‘여호와와의 영광’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절)

- ㉠** (1)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구름, 불, 연기 등으로 나타난다(참조, 출 13:21, 22; 19:9, 18).
 (2) 또한 구름, 불, 연기 등과 같은 가시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호 6:3).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참조, 삼상 10:10; 16:13).

11. **㉠**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나(출 19:9, 18) 성소 안에 나타나실 때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레 16:2; 신 4:11, 12).
 (2) 그 이유는 그의 존엄을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두려운 일이었으므로 캄캄한 구름 속에 스스로 모습을 감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출 33:20; 딤후전 6:16).
 (3)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구약 시대의 계시가 신약 시대의 계시에 비해 분명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고후 3:12-18; 히 9:9, 10).
 (4)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으므로(요 1:14) 구약 시대의 가리워진 진리가 신약 시대에 밝히 증거되었다는 뜻이다(눅 1:78, 79; 요 1:4-9; 엡 5:14).

12.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 사실을 솔로몬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15, 20절)

- ㉠** (1)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약속이 자신에게서 성취됨을 체험하였다(19, 20절).
 (2) 솔로몬은 이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시 89:1)을 확실히 깨닫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성취하신 분이심을 선포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이것을 만방(萬邦)에 증거해야 한다(시 66:16; 고후 4:13).

13. **㉠**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전’이란 말이 나타내는 뜻은 무엇인가? (16, 20, 29, 43, 44절)

- ㉠** (1)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居住)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왕상 9:3).
 (2)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전에서 나타내 주시며 들려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출 25:22).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참조, 삼하 12:9, 10; 롬 1:20; 요일 3:4).

14. **㉠**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8절)

- ㉠** (1) 다윗은 여호와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다(대상 29:3; 시 26:8; 27편).
 (2)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쁨으로 많은 준비를 하였다(대상 22:2-5, 14).
 (3)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좋게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전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모습과 규격을 계시하여 주셨다(참조, 대상 28:12).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시 23:2; 48:14; 눅 1:79).

15. **㉠ 솔로몬이 기도할 때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22, 54절)**

- ㉠** (1)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22절).
 (2) 또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54절; 대하 6:13).
 (3)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시 95:6; 사 45:23)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은 전심(全心)을 다하여 흐트러짐 없이 간절히 기도함을 나타내는 모습이다(애 3:41).

16. **㉠ '상천 하지(上天下地)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 (1) '상천 하지'라는 말은 '위로 하늘에서나 혹은 아래로 땅에서나' (in heaven above or on earth below, NIV)라는 뜻으로 육계(肉界)와 영계(靈界)를 통틀은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온 세상에서 여호와와 같은 신(神)이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유일신(唯一神)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참조, 출 15:11; 시 89:6).
 (3)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진심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참조, 신 7:9).

17. **㉠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할 경우에는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삼하 7:14-16).
 (2)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권을 소유하셨다(눅 1:32, 33).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참조, 마 16:28; 벰전 3:22).

18. **㉠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든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시 139:7-10).
 (2)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말이다(렘 23:24; 행 17:24).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다(잠 15:3; 행 17:24).

19. **㉠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9절)**

- ㉠** (1) 이것은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다(시 48:14).
 (2)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삼하 22:7).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여야 한다(시 91:15; 요 4:24; 15:7).

20. **㉠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서 들으시고(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27-53절)**

- ㉠** (1) 모두 8 번 나온다(30, 32, 34, 36, 39, 43, 45, 49절).

- (2) 이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거하실 진정한 처소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다(사 58:9).
- (3)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보호하여 준다는 것이다(시 91:4; 렘 17:10; 눅 21:18).

21. **㉠** 솔로몬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33-40절)

- ㉠** (1)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2) 그것은 왕이 기름 두름 받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10:1; 16:13).
- (3)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하는 책임이 있었다(삼상 7:5-8; 스 9:6, 7; 느 1:6, 7).
- (4) 그러므로 누구나 제사장이 된 신약 시대(히 10:19-22)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여야 한다.

22. **㉠** 솔로몬의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41-43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먼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성전의 놀라움을 듣고 경외함으로 찾아온 이방인의 예배도 받으시라는 의미이다(참조, 마 2:1-12).
- (2)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귀화한 이방인들은 이미 그런 권리를 얻었고(민 15:14), 이제는 만민(萬民)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43절).
- (3)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이다(롬 3:29).
- (4) 그러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창 22:18; 시 22:27, 28).

23. **㉠** 솔로몬이 전쟁을 '주의 보내신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4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나가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싸우는 것이 되므로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
- (3) 실제로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 앞에서(출 14:13, 14),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수 6:2-5),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울 때(대하 20:15-17),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군대와 싸울 때(사 37:5-7, 14-20, 36-38)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 (4) 오늘날도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 혹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으로써 싸워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참조, 엡 6:10-20; 요일 5:4).

24. **㉠**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나'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46절)

- ㉠** (1) 이 말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출애굽 노정의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출 17:1-3).
- (2)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결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둔 기도이다(신 28:64-68).
- (3) 이와 같이 솔로몬은 앞으로 반드시 발생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했던 것이다.
- (4)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도 양 무리를 돌봄에 있어서 솔로몬과 같은 원시안(遠視眼)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도해야 한다.

25. **㉠**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7절)

- ㉠** (1) 이 말은 그들의 전인격이 돌이켜 죄의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출 3:7-9).
- (2) 즉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다(시 34:18; 51:17).
-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다(참조, 사 51:15).

26. **㉠** ‘은 마음과 은 뜻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48절)

- ㉠** (1) 이것은 진실한 기도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써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인격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 마음과 은 뜻으로 기도해야 한다(대하 16:9).
- (4)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신 6:5).

27. **㉠** 주의 산업(産業)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1, 53절)

- ㉠** (1) 여기에서 ‘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할라>인데 이는 ‘소유’, ‘분깃’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 (2) 따라서 ‘주의 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분깃이 되었음을 가리킨다(출 19:5, 6).
- (3)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시 119:57; 142:5).
- (4)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는 이처럼 끊을 수 없는 소유의 관계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도 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참조, 롬 8:31-39).

2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56절)

- ㉠** (1)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한 곳을 택하여 주셨다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안식을 주셨으며(신 12:9, 10) 제사를 드리는 부동적(不動的) 처소인 성전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다(신 12:12).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참조, 마 5:18; 눅 21:33).

29. **㉠**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58절)

- ㉠** (1) 구약에서 언급되는 ‘계명’은 십계명과 율법을 말한다.
- (2) 또한 ‘법도’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지방 장관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인 법규를 말한다.
- (3) 또한 ‘율례’도 법도에 준하는 말로써 예법이나 관습 등을 말한다.
- (4) 그러므로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하고 그의 지혜에서 나온 나라의 법규를 준수하며 사람들 사이의 예법이나 관습을 지키는 의미이다.

30. **㉠**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61절)

- ㉠** (1) ‘화합하여 완전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렘>으로서 송두리채 맡겨져 하나가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잘 표현해 준다.
- (2) 즉 솔로몬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바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책임을 밝혀 주었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요 16:33; 요일 5:4).

31. **㉠** 솔로몬이 많은 제물을 드린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63절)

- ㉠** (1) 솔로몬은 소 22,000마리와 양 120,000마리를 제물로 드려 성전의 낙성식(落成式)을 거행하였다.
 (2) 이처럼 142,000마리라는 수많은 제물이 바쳐진 것은 성전 낙성식에 전국적으로 거대한 수요의 백성들이 운집(雲集)해 있었음을 나타낸다.
 (3) 한편 당시 솔로몬 왕국은 대단한 물질적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낙성식에 참석한 백성들마다 그 부(富)에 따라서 전례 없이 풍성한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4) 이와 같이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32. **㉠** 솔로몬은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많은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64절)

- ㉠** (1)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바치는 것이고, 소제는 가루 등의 식물(植物)을 드리는 것이며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서 동물을 드리되 그 기름만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들이 먹는다.
 (2) 그러므로 각 지방에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로 일주일 이상 식사를 대신하여 먹었던 것이다.

33. **㉠** '칠일 칠일 합 십 사일'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인가? (65절)

- ㉠** (1) 유대 월력으로 7월 8-21일까지 14일간을 가리키는데 전(前) 7일간은 봉헌식으로, 후(後) 7일간은 장막절 절기로 지켰으며 8일째, 즉 22일에는 폐회 축제가 거행되었다.
 (2) 이와 같이 성전 봉헌식을 장막절 바로 앞에 거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그것은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과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것을 함께 거행한 것이다(참조, 문 5).

본장의 요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61절).

제 9 장 하나님의 언약과 솔로몬의 건축 사업

단락구분 1-9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다 / 10-14 솔로몬과 히람의 교역(交易) / 15-24 솔로몬의 건축 사업 / 25 솔로몬의 제사 / 26-28 솔로몬의 무역(貿易)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2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7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10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와 전과 왕궁을 이십 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 갈릴리 땅의 성읍 이십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12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 이르기를 나의 행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리하노 하고 이롭게 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14 히람이 금 일백 이십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5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와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16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7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벤호론을 건축하고

18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19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아 있는 자

21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22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23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오백 오십 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룸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26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 시온계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7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

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 이
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 ㉠** (1)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여러 가지의 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국력을 강하게 성장시켰다.
 (2)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웃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무역을 실시하였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성(城)들을 건축하였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성취로써 솔로몬 왕국이 더욱 강성(強盛)해진 것을 보여 준다(삼하 7:12, 13).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날마다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참조, 약 1:5).

2.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라(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②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경고하셨다.
 (2) 불순종으로 인한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참조, 미 3:12).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다윗 왕조는 멸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삼하 7:14-16; 시 89:30-37; 합 3:2).
 (4)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다(본서의 서론 문 5와 8장의 문 18 참조하라).

3. **㉠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이다(참조, 출 25:22).
 (2)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만 한 집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대상 28:11-19).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자와 늘 함께하시며 또한 도와 주신다(참조, 요일 2:17; 5:14).

4. **㉠ 하나님께서 여러 죄악을 범한 다윗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시 18:20-24).
 (2)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적은 많은 죄를 범하였다(삼하 12:9, 10; 24:10).
 (3)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율법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지체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삼하 12:13).
 (4)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히 사해 주시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요일 1:9; 참조, 눅 18:13, 14).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다(삼하 7:14, 15).

(2)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참조, 눅 1:31-33, 8장 ㉑18).

6. ㉑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라는 말은 무엇을 묘사하는 표현인가? (8, 9절)

- ㉑ (1)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나타날 일을 묘사하고 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며 또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반드시 그 징계를 받게 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준다(참조, 히 12:7, 8).

7. ㉑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이십’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㉑ (1) 그것은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왕상 5:7-12) 그 대가로 준 것이다.
- (2) 이와 같은 솔로몬 왕과 히람 왕 사이의 우호 관계는 다윗 왕 때부터 계속 되어 왔었다(삼하 5:11).
- (3)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열방 가운데 강하게 세우시고 이방 나라인 두로 왕 히람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성립된 것이다(삼하 5:12).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신다(참조, 마 5:16).

8. ㉑ ‘가불 땅’이란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㉑ (1) ‘가불’이라는 말의 원뜻은 ‘변두리’ 또는 ‘국경’이라는 뜻으로 쓸모없는 땅을 의미한다.
- (2)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별로 쓸모가 없는 땅으로 생각하여(12절) 이곳을 가불 땅이라 칭하였다(13절). 결국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다(대하 8:2).
- (3) 그러나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어떤 오해나 갈등이 없었고 솔로몬은 다른 방도로 감사를 표했으며 히람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14절).
- (4)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이방 왕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처신(處身)해야 한다(참조, 마 5:16).

9. 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㉑ (1) 그것은 히람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왕상 4:34; 5:7).
- (2) 이렇게 솔로몬은 평화로운 정치로 이웃 나라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4:24; 5:4).
- (3) 그러므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불리웠는데 이것은 이미 예언된 약속(대상 22:9)의 성취이다.

10. ㉑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㉑ (1) 다윗은 예루살렘을 요새로 선정하여 다윗 성으로 삼고 성벽을 건축하였다(삼하 5:6-9).
- (2) 그리고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과 강력한 탑들을 쌓으므로 요새화하였다.
- (3) 그것은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삼기 위함인데 그 성 안에는 시온 산, 모리아 산, 솔로몬 성전 등의 중요한 곳들이 있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것을 본받아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마 6:33).

11. ㉑ ‘므깃도’는 어떤 곳이며 그곳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㉑ (1) 므깃도는 에스드렐론 평원의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이집트로부터 다메섹에 이르는 도

로가 그곳을 지나고 있다.

- (2) 그곳은 팔레스틴의 전쟁터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지였다(참조, 사 5:19; 왕하 23:29).
 (3)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이곳이 인류 최후의 결전장인 아마겟돈 전쟁터의 상징적 장소로 언급되었다(제 16:14-16).

12. ㉠ '게셀'은 어떤 곳인가? (15-17절)

- ㉠ (1) 게셀은 블레셋 평원의 언덕 위에 있는 성으로 예루살렘과 읍바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2) 그곳은 이집트와 예루살렘 사이의 해안 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3) 그곳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되어(수 16:3) 레위인의 성으로 이름 붙여졌지만(수 21:21) 가나안 주민들은 쫓겨나지 않았다(수 16:10).
 (4) 그런데 그곳이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 파괴되고 가나안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다(16절).
 (5) 그 후에 바로 왕은 자신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키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그 성읍을 솔로몬에게 주었으며(16절) 솔로몬은 그 성읍을 다시 수축(修築)하였다(17절).

13. ㉠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내의 여러 건물들을 건축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다 이루었다는 뜻이다.
 (2)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 부유하였으며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로웠음을 나타내 준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이 점점 견고하게 발전되었다(삼하 7:12; 대상 22:9).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 주는 역사임을 알 수 있다.

14. ㉠ 솔로몬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시킨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20, 21절)

- ㉠ (1) 솔로몬은 건축 공사를 실시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인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 등을 강제 징용하였다.
 (2)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압제 아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창 9:25).
 (3)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15. ㉠ 솔로몬이 다윗 성에 거주하던 바로의 딸을 밀로의 궁전으로 옮기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솔로몬은 바로의 딸, 즉 애굽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궁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게 했다.
 (2) 그러다가 밀로에 왕비를 위한 궁전을 건축한 후에는 애굽 출신의 왕비를 그곳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3) 그 이유는 다윗 성이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거룩한 곳에 침실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대하 8:11).
 (4) 이와 같이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신자의 전생활이 경건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참조, 딤펢전 4:7).

16. ㉠ 솔로몬은 해마다 몇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25절)

- ㉠ (1) 솔로몬은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는데 '세 번씩'이란 유월절, 칠칠절, 초

막절 등의 3대 절기를 말한다(대하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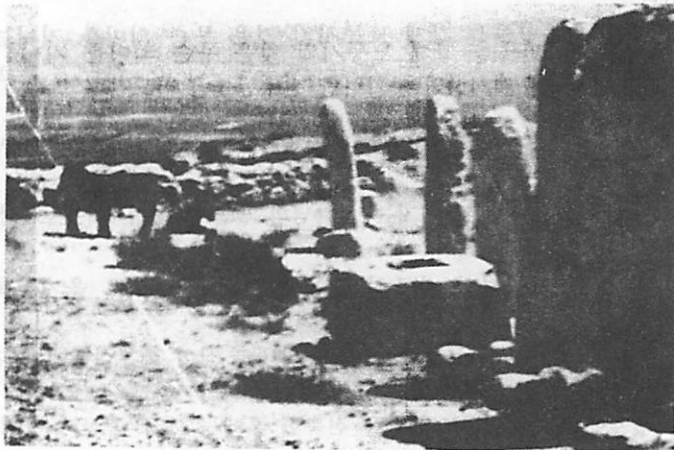
- (2) 결국 솔로몬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출 23:14-17)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17. **㉠**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무역을 도와 준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6-28절)

- ㉠** (1) 솔로몬은 배를 건조(建造)했을 때 두로 왕 히람은 능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무역 활동을 도와 주었다(27절).
- (2) 이와 같이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참조, 사 60:1-9; 계 21:24-26).
- (3)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화보자료

게셀(Gezer). 아래의 사진은 예루살렘과 읍바를 연결하는 도로의 중간 지점, 즉 예루살렘의 북서쪽 30km 지점에 위치했던 고대 팔레스틴의 성읍이다.



애굽의 바르가 가나안 사람에게서 빼앗아 자기의 딸, 즉 솔로몬의 아내에게 준 이 성읍은(16절) 솔로몬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원래 게셀은 레위인 고핫 족속의 거주지로 분배되었으나(수 21:21)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사람의 성읍으로 존속하였다(삿 1:29).

제 10장 솔로몬 왕국의 절정기

단락구분 1-13 스바 여왕의 방문 / 14-22 솔로몬이 금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다 / 23-25 솔로몬이 받은 예물 / 26-29 솔로몬의 풍부한 소금

1 스바 여왕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2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싣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3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4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5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6 왕이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7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8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9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라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10 이에 저가 금 일백 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1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12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와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3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14 솔로몬의 세임금의 중수가 육백 육십 육 금 달란트요

15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재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6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이백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육백 세겔 이며

17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 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8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19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거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20 또 열 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1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2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삼 년에 일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23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24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25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팔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6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일천 사백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들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 왔으니 왕

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29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온 육백
 세겔이요 말은 일백 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귀 영화(富貴榮華)가 최고의 절정에 달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부강(富強)하여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래서 이방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존경하여 많은 예물들을 보내왔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을 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나타내시므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참조, 시 22:27; 사 9:2).

2. **㉡ 솔로몬 왕을 방문한 여왕은 누구인가? (1절)**

- ㉠** (1) 스바의 여왕이었다.
 (2)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에 위치했던 사베안 왕국(the Sabaeans)을 가리키는데 현재의 예멘으로 생각되고 있다.
 (3) 예루살렘에서 1,920km의 거리에 있는 스바의 백성들은 금과 향료와 보석을 많이 수출하는 자들로 유명하였다(시 72:10, 15; 사 60:6; 렘 6:20; 겔 27:22).

3.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1-13절)**

- ㉠** (1) 이스라엘의 선박들이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었다(참조, 왕상 9:28; 10:11).
 (2)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스바의 대상(隊商)들의 루트를 위협하였다.
 (3)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을 방문하였다.
 (4) 또한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과 왕궁과 여러 도시들의 건축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4-6절).
 (5) 이러한 스바 여왕의 방문은 메시아가 오신 후 그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어 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사실을 예시하고 있다(참조, 사 60:3; 계 21:24).

4. **㉣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절)**

- ㉠** (1) 이것은 솔로몬이 영화롭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된 것임을 뜻한다(참조, 4:29-34).
 (2)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3:7-13; 5:4).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의 삶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한다(참조, 시 37:5).

5. **㉤ ‘어려운 문제’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1절)**

- ㉠** (1) 이것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한 까다로운 문제이다.
 (2) 그러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구하기 위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2절).
 (3)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스바 여왕을 언급하셨다(마 12:42).

6. **㉥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충분히 만족하도록 대답하였다는 뜻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로 대답한 것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3) 그 결과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9절).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지혜로운 말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벧전 3:15).

7. **㉠ 스바 여왕이 놀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1)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과 여러 건물들과 신하들의 움직임을 보고 놀랐던 것이다.

(2)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예를 소문으로만 듣고 그러한 사실을 스바 여왕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한다(참조, 고후 2:16).

8. **㉠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頌祝)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지혜로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볼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감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9. **㉠ 솔로몬이 '수금' (豎琴)과 '비파' (琵琶)를 만든 재료는 무엇인가? (12절)**

㉠ (1) 그 재료는 오빌에서 수입하여 들여온 '백단목'이었다.

(2) 이 나무는 약 6m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것인데 무겁고, 아름답고, 향기롭다. 또한 지금도 악기를 만들 때 사용된다.

10. **㉠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준 사실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라 (13절).**

㉠ (1)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 그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었다(13절).

(2)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사 9:6; 마 22:42)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아온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며(요 6:37)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요 16:24).

11. **㉠ 솔로몬의 세입금(稅入金)의 내역(內譯)은 어떠한가? (14, 15절)**

㉠ (1) 이스라엘 왕국 내(內)에서 거둔 세입금은 666금달란트로서 1달란트를 약 34kg으로 계산하면 약 22,644kg이다.

(2) 또한 그 외에도 상고(무역)을 하는 상인, 객상(외국 상인) 등의 통행세나 통관세, 아라비아 왕들의 조공물(朝貢物), 국내 방백들의 공납금(公納金) 등이 있었다.

(3) 이러한 솔로몬의 부(富)를 가리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23절)고 적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3:13).

12. **㉠ 솔로몬 왕은 몇 개의 방패를 만들었는가? (16, 17절)**

㉠ (1) 솔로몬은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큰 방패 200개와 가슴만을 막을 수 있는 작고 둥근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2) 큰 방패에는 600세겔(약 6.8kg), 작은 방패에는 3마네(약 3.4kg)의 금이 들어 있었다

(3) 그것은 방패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쳐서 겹에만 씌운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방패들은 왕의 의장대 또는 축제 때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에 애굽 왕 '시삭'이 약탈해 갔으므로 놋으로 대체하였다(14:25-28).

13. **㉠ 솔로몬이 금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든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8-22절)**

㉠ (1) 솔로몬은 상아 보좌를 만들어 정금(精金)으로 입혔을 뿐만 아니라 컵과 식기(食器)마저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그릇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2)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의 부(富)가 극에 달하여 이스라엘이 놀라운 물질적 풍요 가운데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마 12:42)로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 뿐 아니라 영적인 풍요까지 포함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요 10:10).

14. **㉠** 이방인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3-25절)

- ㉠** (1) 그것은 솔로몬의 풍요로운 재물을 관람하며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이방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던 것이다.
 (2) 이와 같이 솔로몬은 열방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열방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행 13:47; 빌 2:15).

15. **㉠** 솔로몬이 많은 병거(兵車)와 마병(馬兵)을 모은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兵車)와 12,000명의 마병(馬兵)을 준비하였다.
 (2)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과시하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사치스런 행위였다.
 (3)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산지(山地)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말과 병거가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대상 18:3,4).
 (4) 또한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로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신 17:16)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신 17:16)을 어긴 행위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증표이다.
 (5) 이와 같이 인간의 타락은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참조, 잠 16:18; 약 1:14,15).

16. **㉠**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말을 구입해 온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28,29절)

- ㉠** (1) 솔로몬은 말 1마리에 은 150세겔, 병거 1대에 은 600세겔씩 주고 애굽에서 구입하였다.
 (2) 이러한 정책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신 17:16)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3) 이런 사실로 볼 때 솔로몬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왕국은 쇠퇴해 가고 있었다.
 (4)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지만 자신은 타락한 것이다.
 (5)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가 자신은 타락하여 도리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고전 9:27)을 교훈하여 준다.

본장의 요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니 이스라엘 위에
 울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히 이스라엘을 사랑
 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9절).

제 11 장 솔로몬의 타락과

그의 죽음

단락구분 1-8 솔로몬의 우상 숭배 / 9-13 하나님의 경고 / 14-22 하닷의 반역 / 23-25 르손의 반역 / 26-40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다 / 41-43 솔로몬의 죽음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3 왕은 후비가 칠백 인이요 빈장이 삼백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6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야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 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4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16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17 그 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버지의 신복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18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19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며

20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22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23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4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을 모으고 그 폐의 피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옮겨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던라
 25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의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26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투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투아니 과부더라
 27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부친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웨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동하게 하였더니
 29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 두 조각에 찢고
 31 여로보암으로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32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 이는 처회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4 그러나 내가 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36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39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한지라
 40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할 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41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사십 년이라
 43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타락을 설명하라.

- ㉠ (1) 솔로몬은 많은 첩들을 두었는데 그로 인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2) 그는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참조, 시 89:32; 잠 23:14).

2. ㉠ 솔로몬 왕은 이방의 어떤 나라 여인들을 취하였는가? (1절)

- ㉠ (1) 솔로몬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의 많은 이방 나라에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였다.
 (2) 그가 많은 여인을 취한 것은 쾌락을 추구한 것이며 그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다.
 (3) 이같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쾌락에 빠지면 멸망하게 된다(참조, 벧후 2:18, 19).

3. ㉠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솔로몬이 외국 여러 나라의 왕실이나 귀족의 많은 딸들을 왕비로 삼은 것은 정략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2) 또한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권세를 열방에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다.
 (3) 그러므로 솔로몬은 부와 권세를 이용하여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그것으로 육체

적인 일에 몰두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많은 권세나 재물을 가진 자는 그런 것이 없는 자보다 더 타락하기 쉬우므로 권세나 재물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딤편 6:10).

4.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이교(異敎)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이다(출 34:16; 신 7:3, 4).
 (2) 여기서 '이방 여인'이란 가나안 여인들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지만 1절에 기록된 대로 모압, 암몬,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한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였다.

5. **Q** 솔로몬이 취한 후비와 빈장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3절)

- A** (1) 솔로몬은 후비 700명과 빈장 300명을 취하였다.
 (2) 여기서 '후비' (后妃)란 히브리어로 <나뉘임 사르트>인데 왕후(princess)를 가리키며 '빈장'(嫔嬪)은 히브리어로 <필라게섬>이라 하는데 후궁, 즉 왕의 첩들(concubines)을 가리킨다.
 (3) 솔로몬이 아내와 첩들을 1천 명이나 소유했다는 사실은 그가 통치 후기에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해 준다(참조, 4-8절).
 (4) 비록 솔로몬이 정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략 결혼(政略結婚)에 의해 많은 아내를 얻었다 할지라도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신 17:17)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아내의 미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5) 우리는 솔로몬의 경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살전 5:22).

6. **Q** 왕비들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 (4절)

- A** (1) 왕비들은 솔로몬 왕을 유혹하여 다른 이방 신(神)들을 섬기게 하였다.
 (2) 이와 같이 사단은 솔로몬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타락하게 하였다.
 (3) 즉 사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참조, 창 3:6).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7. **Q** '아스다룻'은 어떠한 신(神)인가? (5절)

- A** (1) '아스다룻'은 시돈 사람의 여신(女神)으로 번식과 풍요를 주장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2) 한편 그 우상의 신전(神殿)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음행을 종교 행사의 한 절차로 가졌음을 알 수 있다.

8. **Q** '밀곰'은 어떠한 우상인가? (5절)

- A** (1) '밀곰'은 '밀감'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던(렘 49:1; 암 1:15) 암몬 사람의 우상으로서 '몰렉'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숭배되어지기는 했으나(왕하 23:10, 13) 결국은 같은 우상이었다.
 (2) 밀곰 숭배는 일찌기 모세에 의해 경고 되었는데(레 20:2-5) 실제로 밀곰을 숭배한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본절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3) 바알이 태양의 신이라면 밀곰은 불(火)의 신으로서 밀곰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대하 28:3).

9. **Q**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6절)

- A** (1)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다.
 (2) 또한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을 어긴 것을 말한다(참조,

출 20:3-5; 마 22:37, 38).

(3) 이와 같이 성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 된다(참조, 막 3:29).

10. **㉠**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6절)

㉠ (1) 이것은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일부분이라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마 22:37).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11. **㉠** '그모스'는 어떠한 신(神)인가? (7절)

㉠ (1) '그모스'는 모압의 신으로서 태양 신이며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다.

(2)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신(神)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그 신에게 자기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는데(왕하 3:27), 암몬 자손들도 그들의 신 몰록에게 그렇게 행했다(대하 28:3).

12. **㉠**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山堂)을 짓도록 허락한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7, 8절)

㉠ (1)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솔로몬이 가증스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2) 그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어 그들에게 미혹을 받고 특히 이방 여인 출신의 아내들의 감언 이설(甘言利說)에 넘어 갔기 때문이다.

(3) 결국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도 자기를 미혹할 대상들을 가까이 두고 생활했을 때 여지없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준다.

(4) 즉 인간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적인 유혹을 경계하여 성도들은 정욕(情慾)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딤후 2:22).

13. **㉠**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震怒)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1) 그것은 다른 신을 좇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도록 일깨워 주셨는데(3:5-14; 9:2-9) 죄에 깊이 빠진 솔로몬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이와 같이 성도들도 정욕에 빠져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요일 2:16).

14. **㉠** 하나님께서 범죄한 솔로몬에게 어떤 심판을 선고하셨는가? (11-13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에게서 빼앗겠다고 선포하셨다(11절).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솔로몬 세대에 시행치 않으시고 그의 아들 세대에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다(12절).

(3) 또한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 한 지파만은 남겨 두어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13절).

(4)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끝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의미한다(합 3:2).

(5)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성도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사 48:9).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었다(삼하 7:15).

(2) 또한 성전이 보존 될수 있도록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솔로몬 자손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했는지라도 계속 사랑하시며 징계와 채찍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참조, 시 89:32; 히 12:5-11).

16. **㉠** 하닷의 반역(反逆)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14-22절).

- ㉠** (1)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9, 10절) 에돔 왕의 아들인 하닷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독립 왕국을 세웠다.
- (2) 하닷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죽일 때(15절)에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다(17절).
- (3) 그래서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였으며 바로의 처제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19절).
- (4) 결국 그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 에돔 왕이 되었고 애굽의 승인을 받았다.
- (5)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닷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다(14절; 사 3:12).

17. **㉠**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14-16절).

- ㉠** (1) 그것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에 하닷은 어린 나이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었으므로(삼하 8:13, 14) 이제 솔로몬에게 보복을 한 것이다.
- (2)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솔로몬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이 있었다(14절).
-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를 징벌하신다.

18. **㉠** 르손의 반역(反逆)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3-25절)

- ㉠** (1) 르손은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 장교로서 다윗에 의해 정복당할 때에(삼하 10:19) 다메섹으로 피신하였다.
- (2) 후에 그는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솔로몬을 괴롭혔다(25절).
- (3) 르손의 활동은 너무 미약하여서 솔로몬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뜻밖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위치로 성장한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존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죄를 범한 강한 자를 대적하게 하여 그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신다(참조, 출 8:16-21; 고전 1:27).

19. **㉠**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6-40절)

- ㉠** (1)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예루살렘 수축(修築) 공사 때의(9:15) 감독자로서(28절) 솔로몬 왕이 신임하던 자였다.
- (2) 그러한 사람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자로 배반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다(29-39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신임받는 자를 원수가 되게 하신다(참조, 삼하 15:12-14).
- (4) 그러므로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변의 환경과 인격들이 그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20. **㉠**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8절)

- ㉠** (1) 여로보암은 '스레다'라는 지극히 작은 지방 출신으로 과부의 아들이었다(26절).
- (2) 이렇게 그의 출신이 미천함에도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잘 연마(練磨)하여 '큰 용사'라는 칭호를 얻었다(28절).

21. **㉠**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30-32절)

- ㉠** (1) 아히야의 의복은 왕국을 상징하며(삼상 15:27) 12조각으로 찢은 것은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다.
- (2) 따라서 아히야의 행동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들리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후계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3) 여기서 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 속에 포함되어 분리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 후계자에게 주어진 지파는 두 지파라고 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아히야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한 적이 많은데 이는 시청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다(참조, 렘 13:1-11; 19:1, 11; 27:2, 3; 겔 4:1-17; 12:3-7 등).

2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누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33-36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의 죄 때문이다(33절).
- (2) 한편 백성의 지도자는 그 백성의 대표자이므로 그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 (3)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을 때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태도로 그 지도자를 견책해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23. **㉠** 하나님께서 ‘한 등불’을 항상 있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36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완전히 멸절(滅絶)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 주시겠다는 뜻이다(39절).
- (2) 즉 하나님께서 다윗 계통으로 분열로 인해 약해진 남쪽의 유다를 보존시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하심을 끝까지 성취하시겠다는 것이다(15:4; 왕하 8:19).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다(참조, 잠 21:1).

24. **㉠**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40절)

- ㉠** (1)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열 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솔로몬의 세력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망명 생활을 하였다.
- (2) 이것은 이전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의 확정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한 것과 유사하다(삼상 27:1-4).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으로만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지 아니하고 종종 인간의 한계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役事)만 지나치게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이고 평범한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25. **㉠** 솔로몬의 허무한 죽음이 보여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41-43절)

- ㉠** (1)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42절)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생전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12, 34, 43절).
- (2) 그러나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나라를 가장 부강(富強)하게 다스렸으며 평화롭게 통치하였던 것에 비해 그의 죽음은 허무하였다.
- (3)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하게 지나가고(참조, 전 1:2; 벧전 1:24)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히 9:27).

제 12 장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단락구분 1-15 르호보암이 압제 정치를 선포하다 / 16-20 이스라엘 열 지파의 분열 / 21-24 하나님께서 두 왕국의 전쟁을 막으시다 / 25-33 여로보암이 그의 왕국을 확립하다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다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3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러들이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4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을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명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6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9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명을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을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11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명을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을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12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13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

의 교도를 버리고

14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명을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을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16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18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20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2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 팔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2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4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лага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르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르다 하고

28 이에 제회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29 하나는 벨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라

31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팔월 곧 그 달 십오 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벨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벨엘에서 세웠더라

33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팔월 십오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벨엘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사실과 그 의미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않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이다(15절).
 (3)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참조, 대하 20:6).

2. **㉠**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兆朕)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1:30-40).
 (2)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북쪽 열 지파의 지지를 얻어 이스라엘 전체의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이다.
 (3) 그러나 르호보암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다(19, 20절).
 (4) 이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서(11:31-39)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청원한 내용은 무엇인가? (4절)

- ㉠** (1) 여로보암과 북쪽 열 지파의 지도자들이 강제 노동(強制勞動) 및 세금(税金)의 명예를 완화해 줄 것을 청원했다(참조, 10:14, 15; 11:28).
 (2)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고 오만하여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명예를 부과하였다.
 (3) 이와 같이 르호보암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나라의 어려움을 자초(自招)하였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약 1:5).

4. **㉠** ‘노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6절)

- ㉠** (1) 이들은 솔로몬 왕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혜롭고 연륜있는 정치가들로서 모사 또는 고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2) 그러므로 이 신하들이야말로 백성들이 청원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3) 만일 르호보암이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들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친구의 충고를 늘 기쁘게 받아들여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참조, 잠 27:9).

5. **㉠**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말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어진 왕은 백성을 잘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참조, 마 23:11).
- (2) 이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마땅한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참조, 마 20:28; 요 13:4, 5).
- (3) 이와 같이 형제를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며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참조, 눅 22:24-27; 약 4:10).
6. **㉠** 르호보암이 소년들과 의논한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의견보다 자신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행하였다.
- (2) 즉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인물들과 짝하여 그들의 불합리한 의견을 따른 것이다.
- (3) 이것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의해 결국 큰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방색(地方色)이나 인맥(人脈)에 따라 파당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7. **㉠**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이 말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부친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교만한 말이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敗亡)에 이르고 만다(잠 16:18).
8. **㉠** ‘나는 전갈로 너희를 정치(懲治)하리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 (11절).
- ㉡** (1) ‘전갈’ (全蠶)은 전갈과에 속한 절지 동물로서 길이는 약 6cm 정도이며 생김새가 가재 비슷하고 꼬리 끝에는 독침이 있어 매우 강하게 쏘아 낸다.
- (2) 본절에서 전갈은 이와 같은 전갈의 독침과 같이 침이 들켜 있는 채찍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명칭이다.
- (3) 결국 르호보암이 이러한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력으로 통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4) 이와 같이 무력으로 통치하는 독재자는 반드시 무력에 의해 보복을 당하게 된다(참조, 마 26:52; 계 13:10).
9. **㉠** 소년들이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무력으로 통치하도록 건의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 11절)
- ㉡** (1) 소년들은 르호보암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왕에게 아첨하는 말로 건의하였다.
- (2) 즉 르호보암 왕은 소년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여 결국 실패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아첨하는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망하게 한다(참조, 잠 26:28).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일을 삼가고 도리어 그런 자들을 피하여야 한다(참조, 롬 16:18).
10. **㉠**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가? (13, 14절)
- ㉡** (1) 르호보암은 자신의 부친 솔로몬 왕보다 더욱 엄하게 무력으로 다스리겠다고 포악한 말로 선포하였다(13, 14절).
- (2) 이것은 어리고 연약하여 분별력이 없는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경험없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충동에 따라 선포한 것이다(대하 13:7).
- (3) 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所欲)에 따라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는 절

국 실패하게 된다(참조, 시 10:3; 갈 5:17).

11. **㉠**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뜻은 무엇인가? (15절)
- ㉠** (1)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모두 적당하게 이용하셔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참조, 잠 16:4).
12. **㉠**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한 뜻은 무엇인가? (16절)
- ㉠** (1)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의 자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2) 즉 이것은 유다 지파(베냐민 지파 포함)를 제외한 열 지파가 다윗 왕가(王家)를 배척하는 말이다(참조, 삼하 20:1).
 (3)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반란을 일으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왕을 세워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20절).
13. **㉠**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6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되 르호보암의 통치와 지시를 받지 말라’는 뜻이다.
 (2) 즉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 족군의 통치와 압제가 없는 다른 국가를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말이다.
 (3) 그래서 백성들은 선한 지도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왔다.
 (4) 이와 같이 통치자에게서 백성들의 민심(民心)이 떠나가면 그 정권(政權)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4. **㉠**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아도니람은 르호보암의 신하로서 르호보암을 위하여 세금을 관리하는 우두머리였다.
 (2) 르호보암은 이러한 아도니람을 파견하여 북쪽 지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을 계속 통치하려고 한 것이다.
 (3) 그러나 아도니람은 르호보암의 이러한 지시로 인해 백성들의 들에 맞아서 죽었고 이에 다급해진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15. **㉠**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 (1)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르호보암 왕이 등극(登極)하던 시대(약 B.C. 931)에 다윗 왕가(王家)를 배반하였다.
 (2) 그런데 이 귀절은 본서의 저자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약 B.C. 562-536)까지 배반한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16. **㉠**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2)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다.
 (3) 즉 그들이 다윗의 왕가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중한 죄이다(대하 13:5-8).

(4)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결국 멸망을 초래하였다(대하 13:8; 호 8:4).

17. **㉠**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21-24절)

- ㉠** (1)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 북쪽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려고 하였다(21절).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같은 동족끼리 전쟁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24절). 더우기 이 일은 여호와와의 주권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셨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다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참조, 마 5:22).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18. **㉠** ‘남은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이들은 남쪽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자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2) 즉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다윗의 집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지파들로부터 나온 경건한 사람들을 말한다(대하 11:13-16).
 (3)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좁은 길로 나아간다(참조, 마 7:13, 14).

19. **㉠**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가? (24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11:29-39).
 (2) 즉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

20. **㉠** 여로보암 왕이 거주한 곳은 어디인가? (25절)

- ㉠** (1) 여로보암 왕이 수도(首都)로 정하고 거주한 곳은 ‘세겜’이었다.
 (2)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요단 강 동편 압복 강변의 ‘디르사’에 또 다른 거처를 건설하였다(14:17).
 (3) 그 이유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나 애굽의 시삭 왕이 침입할 때에 보호받기 위함이었다(14:25).

21. **㉠** 여로보암 왕이 ‘부느엘’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부느엘’은 ‘브니엘’이라고도 부르는 성읍으로(창 32:22, 30; 33:17) 비록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하고는 있었지만 압복 나무를 끼고 있어 교통의 요지(要地)였으며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2) 그러므로 수도 ‘세겜’을 견고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전선(前線)인 부느엘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22. **㉠** 여로보암 왕이 염려한 것은 무엇인가? (26, 27절)

- ㉠** (1) 여로보암은 그의 관할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왕래하다가 남쪽 유다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2)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 (3)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마음이 불안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처럼 현대인들도 마음이 불안하여 여러 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23. **㉠**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은 어떤 것인가? (28, 29절)

- ㉠** (1)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대신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였다.
- (2) 이 송아지의 형상은 애굽의 성우(聖牛) 아피스(Apis)의 형상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28절; 출 32:4, 8).
- (3)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계명으로 금했던 죄악이다 (출 20:4, 5).

24. **㉠**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28-30절)

- ㉠** (1)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북쪽 국경에 위치한 단에 두고 다른 하나는 남쪽 국경에 있는 벧엘에 두어 숭배하도록 하였다(29절).
- (2)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예배 중심지를 세워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함이었다.
- (3) 이와 같이 위정자(爲政者)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정자(爲政者)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딤펴전 2:1).

25. **㉠** 여로보암 왕이 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는가? (31절)

- ㉠** (1) 모세의 율법에는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출 28:1-4).
- (2) 그러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결별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이주했으므로 여로보암 왕은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대하 11:13, 14).
- (3)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므로 큰 죄악을 범하였다.

26. **㉠** 여로보암 왕이 마음대로 정한 절기(節期)는 언제인가? (32, 33절)

- ㉠** (1) 여로보암 왕은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우상의 단에 제사를 드렸다.
- (2) 히브리 월력의 '8월'은 '불월'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10월과 11월에 해당하는 달이다(6:38).
- (3)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막절을 모방하여 그 시기를 한 달 후로 정한 것이다(레 23:34).
- (4)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 정하여 우상을 본격적으로 숭배하였다.
- (5) 그러므로 우상을 철저히 숭배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13:1-5).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계 19:20, 21).

제 13 장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단락구분 1-10 여로보암의 제사 행위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 / 11-19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 / 20-32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음 / 33-34 여로보암의 계속적인 타락과 그의 멸망에 대한 예언

1 때에 여호와와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벧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지라

2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 그 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벧엘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게 네게 예물을 주리라

8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 이는 곧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의 벧엘에 오던 길로 쫓아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11 벧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12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13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14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15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 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18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여호와와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3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

24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25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26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28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쏘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

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31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 그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벧엘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 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라

33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34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1. **㉠ 본장의 내용이 주는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벧엘에 와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같이 사람이 예언이나 방언을 하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참조, 고전 9:27).
- (3)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참조, 롬 12:11; 고전 9:27).

2. **㉠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가리킨다.
- (2) 그는 북쪽 이스라엘 영토인 유다로부터 벧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타국에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성도들의 죄를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3. **㉠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1절)**

- ㉠ (1) 이것은 선지자가 벧엘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 전하도록 계시(啓示)해 주신 말씀이다(2, 3, 9절).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권위와 용기를 부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암 3:7; 요 15:15).
- (3)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참조, 엡 3:3, 4).

4. **㉠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의 단을 향하여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장차 유다 왕국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의 뼈를 가지고 벧엘의 단 위에서 제사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 (2) 즉 남쪽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단을 훼파(毀破)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 (3) 이 예언은 그로부터 300년 후에 성취되었다(왕하 23:15, 16).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히 6:18).

5. **Q**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A (1) 본래 '제단'이란 히브리어로 '짐승 잡는 고장'이라는 뜻으로 성별(聖別)된 장소를 가리킨다.

(2) 그런데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사른다는 것은 그 제단이 더럽고 부정한 장소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은 결국 가장 더럽고 부정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6. **Q** 하나님께서 제단을 갈라지게 하신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3, 5절)

A (1)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벧엘의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여서 후일에 철저히 파괴되어 없어져 버릴 것을 암시한다. 이 일은 실제로 300여 년 후 요시아 왕에 의해서 성취되었다(왕하 23:15).

(2)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표적을 보여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왕하 19:29; 20:8; 사 7:14; 8:18).

(3) 그러나 여로보암은 마음이 강박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후손들 까지도 멸절되었다(14:10, 11; 15:29, 30).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비참한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

7. **Q** 여로보암 왕이 '저를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 6절)

A (1)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편 여로보암 왕의 손은 말라서 다시 거둘 수가 없었다(4절).

(2)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다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6절).

(3)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참조, 롬 9:18).

(4)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불신앙을 행치 말고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능력을 볼 때 회개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Q**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마르게 하셨다가 고쳐 주신 사건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4, 6절)

A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뻗은 여로보암의 팔을 마비시킨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나타내 준다.

(2) 또한 하나님께서 그 팔을 다시 고쳐 주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준다(참조, 합 3:2).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신다(참조, 시 9:8; 요 일 4:7, 8).

9. **Q**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환대(歡待)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말하라(7-10절).

A (1)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9절)에 순종하여 여로보암 왕의 환대를 거절하였다(8절).

(2) 또한 이러한 거부는 남왕국 사람이 북왕국과의 종교적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단절함이 가하다는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다.

(3) 이처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육신의 소욕을 좇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갈 5:16).

10. **Q**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9절)

A (1) 여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서로 교제(交際)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 (2) 즉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다(참조, 창43:32; 요4:9; 고전5:11).
-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의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벗이 되어 깊이 교제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참조, 약4:4).

11. **㉠**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어떻게 되었는가? (11-19절)

- ㉠** (1) 벨엘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는 용감한 유다의 선지자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생각에 거짓말을 하고 그를 식사에 끌어들었다.
- (2) 이처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른 말씀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 (3)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요일4:1).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12. **㉠** 벨엘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11절)

- ㉠** (1)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담대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 준 사실(2-6절)을 자신들의 부친에게 말하였다.
- (2)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적당한 시기를 잃지 않고 부친에게 보고하도록 사단에 의해 충동을 받은 것이다.
- (3) 이와 같이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언제 우리의 자연적 욕구를 사용하여 우리를 충동할 지 우리는 알 수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꾀술(詭譎)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골4:2; 벰전5:8).

13. **㉠**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속였는가? (18절)

- ㉠** (1) 늙은 선지자는 나귀에 안장을 급히 지워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 '나도 그대와 같은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고 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인 것이다.
- (2) 이와 같이 예언자가 속이는 영에 의하여 거짓 예언을 하였던 실례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참조, 왕상22:20-23).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14. **㉠**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8절)

- ㉠** (1) 거짓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로서 선량(善良)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다(마7:24; 고후11:15).
- (2)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로서 그의 목적은 사람을 해는 것이다(계13:11).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겉 모습에 선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의 교훈을 잘 판단하여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참조, 요일4:1).

15. **㉠**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0-24절)

- ㉠** (1)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음식을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 (2) 이것은 음식을 대접받는 사소한 불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많은 공적(功績)을 쌓았을지라도 그의 실수는 책망을 받는다.

(4)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더 매질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히 12:5-8).

16. **㉠**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24-28절)

- ㉠** (1) 하나님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자의 습격을 받고 죽었다.
- (2) 그러나 사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물지 아니하였다(28절).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본능을 특별히 조종하셔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임을 나타내 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17. **㉠** 늙은 선지자가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어 달라고 말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9-32절)

- ㉠** (1) 그것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인 자신의 행위를 회개함과 동시에 참 선지자의 몸 가까이에서 쉬고자 하는 간절한 원망(願望) 때문이었다.
- (2)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온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참조, 눅 15:10; 요일 1:9).

18. **㉠** 여로보암 왕이 악한 일을 계속 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3, 34절)

- ㉠** (1)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 (2) 그 이유는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왕래해야 하므로 왕국의 붕괴를 염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3) 그러나 여로보암 왕의 이런 생각은 모든 권세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롬 13:1).

19. **㉠**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33, 34절)

- ㉠** (1) 여로보암 왕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멸절되었다(14:10, 11; 15:27-30).
- (2) 이것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경고와 책망을 받고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끝까지 중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시며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참조, 고전 10:14; 엡 5:5).

본장의 요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
 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8절).

제 14 장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르호보암의 통치

단락구분 1-16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 / 17-18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 / 19-20 여로보암의 후계자 나담 / 21-24 유다 왕 르호보암의 죄악 / 25-28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다 / 29-31 르호보암의 후계자 아비얌

1 그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3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 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든을 인하여 내게 물어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6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노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네게 고하리니
 7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쫓아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 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함을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갭게 쓸어 버릴지라
 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였나니
 12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 은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 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 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가 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 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 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1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 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 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흠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16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 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 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17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 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18 은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 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9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 대지략에 기록되니라
 20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이십 이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 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사십 일 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 에서 십 칠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22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 조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와 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23 이는 저허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24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25 르호보암 왕 제 오 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 여호와와 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7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

기매

28 왕이 여호와와 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29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31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 왕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절될 것이라는 예언과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 (2)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의 실정(失政)과 그의 죽음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왕들을 멸하실지라도 새로운 후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2. ㉠ 병든 여로보암의 아들은 누구인가? (1절)

- ㉠ (1) 그 아들은 '아비야'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나의 아버지' 라는 말이다.
- (2) 그 이름으로 볼 때 그 아들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던 시절에 나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또한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충실하게 섬기다가 여로보암의 가문(家門)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다(13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안에 참 피난처가 있음을 알고 평안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3. ㉠ '그때에'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여(13:33)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
- (2) 즉 아버지의 지속적인 범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되어 아들이 병들었음을 나타내 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적당한 때에 이루신다.

4. ㉠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낼 때에 그녀를 변장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주된 관심사인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보려고 취한 행동이었다.
- (2) 이 사실을 볼 때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으나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3) 이와 같이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며 오히려 어두움을 좋아한다(참조, 요 3:19).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생활하여야 한다(참조, 시 17:1; 잠 15:8).

5. **Q**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물어보도록 하였는가? (3절)

- A** (1)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의 장래에 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였다.
 (2) 그런데 그는 자기가 당한 환난 앞에서도 그 환난의 의미를 알아 볼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처신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3)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자신을 살펴 보는 겸손이 필요하다.

6. **Q**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A** (1) 그것은 여로보암이 위급한 때에 그의 우상인 금송아지들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욱 의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2) 즉 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우상이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였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후에는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여러 번 하게 된다. 즉 죄는 죄를 낳아 멸망에 이르게 한다(참조, 약 1:15).

7. **Q** 눈이 어두운 아히야가 변장한 여로보암의 처를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었는가? (4-6절)

- A** (1) 선지자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지만(4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므로(5절)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볼 수 있었다(6절).
 (2)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지으셨으므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으며(출 4:10-12; 시 94:9)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대상 28:9; 시 7:9).

8. **Q**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제 하느뇨'라는 말은 누구를 책망한 것인가? (6절)

-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책망한 것이다.
 (2) 또한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는 여로보암을 책망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9. **Q** 여로보암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7, 8절)

- A**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출생이 미천한 여로보암을 택하여 북쪽의 열 지파를 다스리게 하셨다(11:31-38).
 (2)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도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반역의 죄를 범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할 때 마음이 더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여로보암의 징계를 집행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출 20:5).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10. **Q**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동기는 무엇인가? (9절)

- A** (1)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12:26-33).
 (2) 즉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사악한 우상을 만든 것이다.

- (3)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정치욕이 너무 강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욕망이든지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인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여야 한다(골 3:5).

11. **㉠** 하나님께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가?(9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가까이 섬긴 것을 가리킨다.
 (2) 즉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한 행위를 징책하시는 말이다.
 (3) 또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것이다(12:26-28).
 (4) 이와 같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는 더욱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참조, 사 9:16, 17).

12. **㉠** 여로보암의 가문(家門)에 대한 예언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 모든 남자들이 죽고 그들의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10, 11절).
 (2) 이러한 여로보암 가정의 운명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에 대한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다(계 19:17, 18).
 (3)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 **㉠**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12, 13절)

- ㉠** (1)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할 때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12절).
 (2) 이와 더불어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墓室)에 들어갈 것이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3) 이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로보암 집에 임할 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4) 그러므로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죽어 갔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5) 하나님께서는 의인(義人)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신다(참조, 사 57:1).

14. **㉠** 여로보암의 가정에 벌을 내린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 (1) 그 왕은 바아사이다(15:27-29).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가(王家)인 여로보암의 가문(家門)을 멸하시기 위해 다른 가문(家門)을 통해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15:28-30).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15. **㉠**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15, 16절)

- ㉠** (1)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 하수(河水) 밖으로 흩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15절).
 (2) 이 말은 장차 북쪽 열 지파가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어 유프라테스 강 밖, 즉 이방 땅으로 끌려 갈 것을 가리킨다(신 28:63, 64; 29:28).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미혹시켰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이 예언은 B. C. 722년에 성취되었으며(왕하 17:6)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망하게 된다(마 15:14)는 교훈을 준다.

16. **㉠** 여로보암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인가? (17, 18절)

- ㉠** (1) 그곳은 오늘날 텔루사라고 불리우는 고대 가나안의 도시였던 ‘디르사’였다(17절).
- (2) 여로보암 왕은 처음에 ‘세겔’을 수도로 정하고 도읍하였는데(12:25) 후에 ‘디르사’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곳으로 옮겼으며 그 당시 거기에 살고 있었다.
- (3) 이 ‘디르사’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길 때(16 : 24) 까지 계속 이스라엘 열왕들의 수도가 되었다.
- (4) 이곳은 군사 요충지일 뿐 아니라 주위 풍물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아 6:4).

17. **㉠** 여로보암 왕의 죽음이 나타내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0절)

- ㉠** 1.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 죽었다(대하 13:20).
- 2. 여로보암은 재위 22년 만에 비참하게 죽었고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계승되었으나 그 아들은 2년 후에 왕좌와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었다(15:27, 28).
- 3. 이와 같이 왕이나 거지나 모두 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악인은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고(사 16:4) 의인은 소망 중에 기다린다(잠 14:32).
- 4.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수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한다(계 2:10; 14:13).

18. **㉠**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행한 범죄는 무엇인가? (21, 22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세우시고 부강(富強)하며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
- (2)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대하 12:1)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얻어(대하 11:21)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였다.
- (3) 이와 같이 사람은 생활이 평안하거나 세력이 강할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와 쾌락에 빠지기 쉽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참조, 시 119:71).

19. **㉠** ‘아세라 목상’ (木像)은 어떤 우상인가? (23절)

- ㉠** (1) 이 우상은 골짜기에 세우는 기둥 같은 모양의 농경 사회의 우상이었는데(출 34:13) 농작물을 다스리는 신(神)이라고 한다.
- (2)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산당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는 남창 여창을 들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명칭으로서 로마인들은 그들을 ‘갈리’라고 불렀다.

20. **㉠**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탈취(奪取)해 간 물건은 무엇인가? (25, 26절)

- ㉠** (1) 시삭 왕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금방패를 탈취해 갔다(26절).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애굽을 통하여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에 벌을 내리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21. **㉠** 유다 왕국이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으나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5-28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멸하시기 위해 애굽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많은 보물을 잃게 하셨으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 (2) 그 이유는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이다(대하 12:6, 7, 12).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되 어느 정도 남겨 두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연구자료

부어 만든 우상(Molten image). 히브리어로 <마세카>라고 하는 '부어 만든 우상'은 용해된 금이나 은, 혹은 철이나 청동 등을 미리 만들어 둔 틀에 부어 제작하였다(신 27:15; 사 40:18-20). 팔레스틴에서 출토된 상(像)들에는 청동으로 주조한 동물의 모습을 가진 것과 금이나 은을 입힌 사람의 형상을 지닌 입상(立像)들이 있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드라빔'이라는 가정 수호신이 있었다(창 31:19, 34, 35). 드라빔은 점을 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겔 21:21; 숙 10:2). 그러나 역시 가신(家神)이기 때문에 새긴 신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혹은 입체 신상(왕하 23:24)과 마찬가지로 우상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었다. 그 형상에 관한 성경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드라빔은 보통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조그마한 가족 수호신은 진흙을 가지고 주형(鑄型)을 떠 만들거나 손으로 모양을 빚어 제작되기도 하였다. 조그마한 바알 상은 대부분 수리아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금속으로 주조를 떠 만든 후에 금으로 도금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어 만든 우상은 새겨 만든 우상(graven image)과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이 금지되었으며(9절; 출 32:4; 34:17)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파괴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신 7:5; 12: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받아들였으며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시적(可視的)인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다(출 32:23; 사 17:3). 따라서 이러한 사악한 우상 숭배는 선지자들로부터 계속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참조, 사 30:22; 40:19; 호 13:2).

제 15 장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전쟁

단락구분 1-8 유다 왕 아비얌의 통치 / 9-22 유다 왕 아사의 통치 / 23-24 아사 왕의 후계자 여호사밧 / 25-32 이스라엘 왕 나담의 통치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 / 33-34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통치

1 11년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 십 팔 년에 아비얌이 유다왕이 되고

2 예루살렘에서 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 아비얌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4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였으니

5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6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얌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 아비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 예루살렘에서 사십 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1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13 또 그 모친 마아가라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14 오직 산당은 없이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와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

쟁이 있으니라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18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19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대

20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아가와 긴네렛 은 땅과 남달리 은 땅을 쳤더니

21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22 이에 아사 왕이 은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들과 재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계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3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24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 유다 왕 아사 제 이 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6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7 이에 잇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김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담과 은 이스라엘이 김브돈을 에워 싸고 있었음이라

28 유다 왕 아사 제 삼 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중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다라

31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

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2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33 유다 왕 아사 제 삼 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십 사 년을 치리하니라

34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시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서로 전쟁하는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열왕들의 행적(行蹟)을 모두 기억하시고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심을 알 수 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며 그 행위의 공적(功績)대로 갚아 주신다(롬 2:6-8).

2. ㉠ 아비얌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세워야 했다(11:36; 대하 13:8).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인 아비얌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다.
- (2) 또한 아비얌에게는 형들과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대하 11:18-21) 그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부친 르호보암이 그의 모친 마아가를 다른 부인들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비얌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다(대하 11:22).

3. ㉠ 아비얌의 죄악은 무엇인가? (3절)

- ㉠ (1) 아비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며 여로보암과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대하 13:4-12).
- (2) 그러나 아비얌은 그의 부친 르호보암이 죄악을 범한 것(14:22-24)처럼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다.
- (3)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섬긴다고 하면서 무당이나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5) 우리는 이런 죄악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

4.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 (1) 이것은 예루살렘을 통치할 다윗의 후손을 가리킨다.
- (2) 이 다윗의 후손은 환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을 것(11:36-39)을 약속해 주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 그 유다 나라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속 진행시키셨다(왕하 8:19).
- (4)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룩해 가신다(롬 1:3, 4; 히 1:1, 2).

5. ㉠ 유다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6, 7절)

- ㉠ (1)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저희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깨뜨린 결과이다(삿 3:12).
- (2) 즉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으로 불화

가 생긴 것이다.

- (3) 이와 같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 사회, 국가에는 불화와 전쟁만 일어난다(참조, 골 3:15).

6. **㉠** 아사 왕의 모친은 누구인가? (10절)

- ㉠** (1) 그의 모친은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10절).
 (2) 그런데 마아가는 아비얌 왕의 모친이라고도 하였다(2절).
 (3)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아사가 아비얌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2절).
 (4)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모친'이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친'이라고도 한다.
 (5) 그러므로 마아가는 아비얌의 어머니이고 아사의 할머니였다.

7. **㉠**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이 나타낸 뜻은 무엇인가? (11절)

- ㉠** (1)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옳게 행하며 그들의 칭찬을 듣기는 비교적 쉽다.
 (2)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란 쉽지 않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잠 16:2; 롬 8:27; 히 4:12).
 (4) 그러므로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한 것은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이다.
 (5)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에 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시 51:6).

8. **㉠** 아사 왕이 '남색(男色)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그것은 아사 왕이 도덕적인 개혁을 하여 그 땅에 오랫동안 존재하던 음란한 행위를 몰아냈다는 것이다.
 (2) 즉 여호와의 신부인 거룩한 백성 안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행위(엡 5:12)가 있음은 안 아사 왕은 가장 먼저 이 가증한 죄악들을 몰아낸 것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개혁을 일으켜 성결(聖潔)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9. **㉠** 아사 왕이 마아가가 세운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녀의 태후의 위를 폐한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아사 왕은 그의 조모(祖母)인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고 그녀의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2) 즉 모든 우상을 없애려고 하는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가정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와 국가를 더욱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딤후 3:5).

10. **㉠** 아사 왕이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아사 왕이 그 나라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던 죄악과 우상을 갑자기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실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다.
 (3)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그 일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11. **㉠** 아사 왕이 성전에 구별하여 드린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아사 왕은 그의 부친 아비얌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취한 전리품(대하 13:8)과 자신이

구스인들과 싸워 얻은 전리품(대하 14:15) 중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하나님께 헌물하였다.

- (2) 그것은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대하 14:1, 7).
- (3) 이와 같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시대처럼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야 한다(참조, 요 14:27; 16:33).

12. **㉠** 아사 왕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상태로 변모했는가?(16-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아사 왕을 연단시키시고 또한 큰 축복을 주셨다.
- (2) 즉 아사 왕은 전쟁할 때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대하 14:11).
- (3) 또한 그는 전쟁을 통하여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으며 경제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었다(대하 14:13-15).
- (4) 이와 같이 아사 왕은 전쟁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그의 경건 생활이 더욱 성숙되었다(대하 15:8).

13. **㉠**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17절)

- ㉠** (1) 유다 왕 아사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 성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대하 14:1-7).
- (2) 그 결과 유다의 종교 개혁 운동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 영향을 끼쳐 북쪽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의 참된 예배에 합세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왕래했다(대하 15:9).
- (3) 그래서 바아사 왕은 마치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처럼(12:26-28) 그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많이 돌아갈 것을 두려워 하였다.
- (4) 그러므로 바아사 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다의 국경 지방을 침략하고 성읍 라마를 요새화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래를 금하였다(17절; 대하 16:1).
- (5)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들의 백성들이 자유 세계의 국가들로 망명할 것을 두려워하여 높은 장벽을 쌓고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여행을 금하고 있는 것과 같다.
- (6) 이와 같이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이 점차로 사라져 가는 것처럼 어떤 가정이나 사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결국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참조, 마 5:16; 고후 2:16).


14. **㉠** 아사 왕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고 군사 원조를 요청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8-22절)

- ㉠** (1) 유다의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쳐들어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있던 많은 은금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고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18, 19절).
- (2) 그 결과 이스라엘 바아사 왕은 패하여 돌아갔으며 아사 왕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두 요새를 얻게 되었다(21, 22절).
- (3) 그러나 아사 왕은 봉헌된 금과 은을 취하여 북방의 이방인들을 매수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을 의지하였던 사실에 대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다(대하 16:7-9).
- (4)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5. **㉠** 아사 왕이 발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실이 본서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기록한 이유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만큼 경건하고 훌륭한 명군(名君)이었으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 쓴 것이다.
- (2) 즉 아사 왕은 그의 치료를 의사로부터 구했고 여호와께로부터 하지 않았다(대하 16:12). 이것은 오래 살수록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갔음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성도가 자기의 병을 위해 의료의 혜택을 보는 것이 죄악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면 마땅히 삼가해야 할 일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의 의술이나 약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왕하 20:7; 딤후 5:23) 그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16. **㉠** 여로보암의 후손이 비참하게 멸절된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5-30절)
- ㉠** (1)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답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28, 29절). 이로써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14:10, 11) 그대로 성취되었다.
- (2) 이처럼 여로보암의 일가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의 아들 나답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26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여로보암의 가문(家門)을 멸절시킴으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참조, 출 20:4, 5).
17. **㉠** 바아사 왕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치리(治理)하였는가? (33, 34절)
- ㉠** (1) 바아사 왕은 이스라엘을 24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33절; 16:8).
- (2) 그러나 엘라 왕은 그의 신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또한 그의 후손들도 모두 멸절되었다(16:9-12).
- (3) 그 이유는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계속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34절; 16:7, 13).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공의(公義)로 다스리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報應)하신다(참조, 롬 2:6, 9).

본장의 요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4절).



제 16 장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7 바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 / 8-14 엘라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다 / 15-20 시므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 21-28 오므리의 죄악 / 29-34 아함의 죄악

1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2 내가 너를 진도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름 격동하였은즉

3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4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5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6 바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아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와 노름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라

8 유다 왕 아사 제 이십륙 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년을 위에 있으니라

9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궁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 이십칠 년이라

11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12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13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름 격동하였더라

14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5 유다 왕 아사 제 이십칠 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 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길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매

17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길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18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0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21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좃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좃았더니

22 오므리를 좃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좃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으매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23 유다 왕 아사 제 삼십일 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이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육 년 동안 치리하니라

24 저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좃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25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27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8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 유다 왕 아사 제 삼십 팔 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 이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2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33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발하였더라

34 그 시대에 벨엘 사람 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딸째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바아사로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행한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다.

(2) 즉 바아사 - 그 아들 엘라 - 반역자 시므이 - 오므리 - 그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가는 하나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죄의 길로 걸어갔으며 아합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3)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다. 결국 바아사 일가는 시므리에 의해 멸망당하고 시므리 역시 자결하였으며 오므리 일가도 훗날 예후에 의해 멸족되는 비운을 겪었다(왕하 10:1-11).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를 간과치 않으시고 결국 그 죄값을 계산하신다.

2. **㉠ 바아사를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1절)**

㉠ (1) 그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였다.

(2) 그의 아버지 하나니도 하나님 대신에 아람 왕 아사를 책망함으로 옥에 갇힌 선지자였다(대하 16:7-10).

(3) 이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받들고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건 그에게 달려가서 경고와 책망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것처럼 부름 받은 교역자(敎役者)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퍼는 일에 전념하여야 한다.

3. **㉠ 바아사 왕이 책망받은 죄는 무엇인가? (2-4절)**

㉠ (1) 그의 죄는 여로보암처럼(12:26-33)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다.

(2) 또한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진토(塵土)와 같이 천한 신분에서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반역의 죄를 범한 것이다.

(3)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여로보암처럼(15:25-30) 그와 그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는 엄한 벌을 내리신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한 벌을 내리신다.

4. **㉠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8-10절)**

㉠ (1) 엘라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신하인 시므리의 반역에 의

해 죽임을 당했다.

- (2) 그런데 엘라의 통치 기간은 유다 왕 아사 제 26년부터 시작해서 제 27년에 마쳤으므로 사실상 1년 동안이다(8, 10절).
- (3) 이와 같이 그의 통치 기간이 짧은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오랫동안 두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 (4) 결국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자는 그의 수명이 길지 못하며 반드시 무력으로 비참하게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참조, 마 26:52; 계 13:10).

5. **㉠ 엘라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가? (9, 10절)**

- ㉠** (1) 엘라 왕이 자신의 신하 궁내 대신(宮內大臣)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시므리의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 (2) 이같이 사람이 육체적인 향락에 심취해 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볼 수가 없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을 위한 것에 빠지므로 삼킬 대상을 찾고 있는 마귀의 계(詭計)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한다(벧전 5:8).

6. **㉠ 하나님께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家門)에 엄한 벌을 내리신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0-13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아사의 아들 엘라와 그의 가문(家門)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엄한 벌을 내리셨다.
- (2) 그 이유는 바아사가 우상 숭배에 물들은 여로보암 왕족을 멸절시켰지만(15:28-30) 그 자신도 똑같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 핑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참조, 롬 2:1-3).

7. **㉠ 시므리가 왕이 된 후 엘라의 온 가족과 친구들을 죽인 사건이 나타내는 교훈은 무엇인가? (11-13절)**

- ㉠** (1)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잡은 후에 보복을 두려워하여 엘라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죽였다(11절).
- (2) 이것은 엘라와 그 부친 바아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바아사 왕 때에 선지자 예후가 예언한 대로(3절) 이루어진 것이다.
- (3)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 시므리도 결코 선한 자가 아니며 바아사나 엘라와 다름없는 악인이었다는 사실(19, 20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적당한 시기에 이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준다(잠 16:4).

8. **㉠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15, 16절)**

- ㉠** (1)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지 7일 만에 백성들의 또 다른 반란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다(15절).
- (2)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악한 통치자는 그의 종말을 급하게 맞이한다.
- (3) 이와 같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줄지에 멸망하게 된다(참조, 시 1:3-5; 73:18, 19).

9. **㉠ 시므리는 어떻게 죽었는가? (17, 18절)**

- ㉠** (1) 시므리는 오므리가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디르사 성이 함락되었음을 알고 자신의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가운데서 자살하여 죽었다.
- (2) 이와 같이 시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기 자신을 살인(殺人)한 것이며 또한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범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살(自殺) 행위가 중대한 죄인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10. **Q** 시므리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얼마 동안의 내란이 있었는가? (21-23절)

- A** (1) 시므리는 유다 왕 아사 제 2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되었다(15절).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의 추대를 받은 오므리는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23절).
- (3) 그러므로 약 4년 동안 디브니를 쫓는 백성들과 오므리를 쫓는 백성들 사이에 내란이 있었음이 분명하다(21절).

11. **Q**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A** (1) 오므리 왕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은 두 달란트에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였으며 그것을 전(前)소유주인 세멜의 이름을 본따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일컬었다.
- (2) 한편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도(王都)를 여러 번 옮겼는데 처음은 세겜이었고 다음은 디르사였으며 이제는 사마리아로 옮긴 것이다.
- (3) 그러나 유다 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예루살렘을 계속 수도(首都)로 삼아 왔다.
- (4)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백성들은 요동치 않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항상 방황하게 된다.

12. **Q** 오므리 왕은 어떤 죄악을 범하였는가? (25, 26절)

- A** (1) 오므리 왕은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였다.
- (2) 여로보암 왕이나 바아사 왕은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였다.
- (3) 그러나 오므리 왕은 더욱 악하여 악한 일을 법률로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다(참조, 미 6:16).
- (4) 이와 같이 죄악은 전염병과 같아서 결국 파멸로 이끈다.

13. **Q** 아합 왕은 어떤 죄악을 범하였는가? (29-33절)

- A** (1) 아합 왕은 더욱 악하여 여로보암 왕의 죄를 답습하는 것은 가볍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방의 바알 신(神)을 위하여 사당(祠堂)을 짓고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다.
- (2)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점점 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악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인도하였다.
- (3)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8:4-22).

14. **Q** 아합 왕은 이방의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가? (31절)

- A** (1) 아합 왕은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 (2) 이세벨은 천성이 사악(邪惡)하고 음행(淫行)과 술수(術數)가 뛰어나며(왕하 9:22) 또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
- (3) 즉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멸망으로 이끌어 간 악한 여인으로서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불렀다(계 2:20).
- (4) 이와 같이 한 성도의 가정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로 들어와 그 성도의 가정을 멸망으로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성도들은 결혼하는 일에 조심하여야 한다(참조, 고후 6:14).

15. **Q** 여리고 성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인가? (34절)

- Ⓐ (1) 여리고 성을 건축한 사람은 벨엘 사람 히엘이었다.
- (2) 그는 오래 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 (3)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한 저주를 약 500여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그 저주가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성취된 것이다(수6:26).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됨을 알 수 있다(마5:18).

16. ⓐ 여리고 성을 건축한 히엘은 어떤 벌을 받았는가? (34절)

- Ⓐ (1) 히엘이 여리고 성의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의 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스굽이 죽게 되었다.
- (2) 즉 그는 여리고 성의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만아들을 필두로 모든 자식을 잃게 되었고 성 건축이 끝날 무렵 끝내 막내 아들마저 잃음으로 자식이 없게 되었다.
- (3) 이 사실을 볼 때 히엘은 마음이 강박하여 만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 (4)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벌로써 악인을 다스리신다.

17. ⓐ '그 시대'란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가? (34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를 말한다.
- (2) 즉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이 최악의 범죄에까지 이르렀는데 그중에서도 아합 왕이 가장 악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30, 31절)는 것이다.
- (3)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히엘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런지 두렵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악한 시대의 어지러운 사조(思潮)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참조, 빌 2:15).

본장의 요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0절).

제 17 장 엘리야의 출현과 초기 사역

단락구분 1-7 엘리야의 처음 예언 / 8-16 엘리야를 공제(供饋)한 사르밧 과부 / 17-24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소생(蘇生) 시키다

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사대

3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 릿 시냇가에 숨고

4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 저가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곳 시냇가에 머물매

6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사대

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제하게 하였느니라

10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뿔을 쭈는지라 이에 불려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툇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툇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날 먹었으나

16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툇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 진지라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9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우고

20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제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사역과 그 의의(意義)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맹렬하게 숭배할 때 엘리야가 출현하여 그들의 죄악을 담대하게 책망하였던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히 12:7,8).

2. **㉠** 엘리야의 출현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 절)

- ㉠** (1) 엘리야는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셋 사람으로 그의 출생과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의 사역을 행하였다.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하여 더욱 많은 기사(奇事)와 이적을 나타내셨다.
- (4) 그 결과 엘리야의 영적 능력과 사역은 구약의 역사 중 어떤 부분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 (5) 이와 같이 세상이 태평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고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밝게 빛난다.

3. **㉠** 엘리야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는가? (1 절)

- ㉠** (1) 엘리야는 광야에서 생활하고(19:4) 거친 양가죽 옷을 입었으며(19:13; 왕하 2:8) 놀라운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 자였다(18:46).
- (2)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마 3:1,4)의 모형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며 죄인들을 겁없이 책망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인 성격의 엘리야에게 그 성격과 유사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사람들을 각자에게 합당한 적재 적소(適材適所)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

4. **㉠** 엘리야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였는가? (1 절)

- ㉠** (1) 엘리야는 아합에게 경고하였다.
- (2) 그는 세 번이나 궁중 설교를 하였는데(17:1; 18:2; 21:20) 그때마다 그의 생명은 위태로왔다.
- (3)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싫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같이 담대하게 행하였다.
- (4) 즉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일을 하였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사라진다(참조, 사 51:12, 13).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진실하고 담대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참조, 마 10:28).

5. **㉠**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경고하였는가? (1 절)

- ㉠** (1) 그는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합에게 경고하였다.
- (2)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 (3) 즉 그의 전생애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순간마다 의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6. **㉠**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1절)

- ㉠** (1)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우로(雨露)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징벌하시는 것으로 옛적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참조, 신 11:17).
- (3) 또한 이때에 비가 오지 않고 모든 초목이 죽어가게 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결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약 5:17).
- (4) 이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경책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아합 앞에 섰을 것이다.
- (5)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여야 한다.

7. **㉠** 엘리야는 예언을 한 후에 어디로 피신하였는가? (3절)

- ㉠** (1)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마디의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었다.
- (2) 이러한 사실은 엘리야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만을 전하였으며 그의 사역을 침묵 중에 행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 (3) 즉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많은 표적(表蹟)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이다.
- (4)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많은 설교를 하고 요란한 소리와 열정으로 가득차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이 오히려 그 설교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 (5)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빛나는 진실성과 언행 일치(言行一致)의 삶을 보여 줌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8. **㉠**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엘리야가 아합의 노여움을 입어 환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사 26:20).
- (2)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의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고독에 빠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交際)를 나누면서 필요한 영력을 얻어야 한다(참조, 시 119:71).

9. **㉠** 엘리야가 아합의 노여움을 피하여 숨을 때에 그는 어떻게 보였는가? (5절)

- ㉠** (1) 엘리야가 아합의 노여움을 입어 그릿 시냇가로 도피할 때에 그의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 (2)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은 헛되지 아니하고 더욱 찬란히 빛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나타내었다.
- (3)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끔 실패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 (4)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행한 일은 무엇이든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사 55:11)을 알고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여야 한다.

10. **㉠**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숨기신 사실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릿 시냇가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18:10, 12).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

다(6, 15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고전 10:13)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시 57:1; 121:4).
- (4) 한편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요 16:33) 도리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

11. **Q**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셨는가? (6절)

- A** (1)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
 (2) 그런데 까마귀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새로서 동물의 눈알까지도 쪼아 먹으며(잠 30:17) 자기 새끼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매정한 야수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람에게 몰려다 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본능까지도 지배하심을 보여 주고 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까마귀 같은 동물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신다(참조, 잠 16:7).

12. **Q**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9절)

- A** (1)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 주셨다.
 (2) 그런데 그 과부는 너무 가난하여 아사(餓死) 직전에 있었으며 또한 그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계획이었다(12절).
 (3) 이렇게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궤(供饋)하도록하신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큰 것이나 지극히 작은 것이나 동일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어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다(삼상 14:6).

13. **Q**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한 일은 무엇인가? (9-11절)

- A** (1)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사르밧 성으로 가서 그 성문 곁에 서서 나무 조각을 쭤고 있는 한 과부에게 먹을 물과 음식을 달라고 하였다(10, 11절).
 (2)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하였다.
 (3) 이와 달리 우리는 환경이 적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4)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오류(誤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약속임(출 3:10-12)을 알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14. **Q**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0-16절)

- A** (1) 엘리야를 접대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거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었다.
 (2)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궁핍하고 고독한 한 불쌍한 과부였다.
 (3)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심을 알 수 있다(참조, 고전 1:27, 28).
 (4)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둔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자(참조, 시 27:14).

15. **Q** 엘리야는 자신을 도와 줄 과부를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가? (10절)

- A** (1)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 곁에서 그 과부를 만났다.
 (2) 그녀는 성문 곁에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떡을 구울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쭤고 있었다.

104 열왕기상 17장

(3) 그런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복(供餓) 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으로 부름 받은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계획들을 사용하시며, 또한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成敗)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잠 19:21).

16. **㉠**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였는가? (11-16절)

㉠ (1)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자기와 자신의 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2) 그것은 과부가 음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3)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집에 기름과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다.

(4)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상을 받게 된다(시 39:19).

17. **㉠**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는가? (17-24절)

㉠ (1)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큰 시험을 내려 그녀의 정신적 기둥이며 소망인 독자(獨子)를 죽게 하셨다(17절).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과부의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22절).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널리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도록 하셨다.

18. **㉠**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7-24절)

㉠ (1)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녀에게 시험을 주셨다.

(2) 그 과부는 시험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으며(18절)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24절).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얻고(약 1:3) 더욱 믿음이 장성하여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벧전 1:7).

(4)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기고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자(약 1:2, 3, 12).

19. **㉠**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19-22절)

㉠ (1)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 살아나게 되었다.

(2) 물론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經綸)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잠 15:29).

(4)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결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히 12:4)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약 5:16).

제 18 장 갈멜 산에서의 엘리야

단락구분 1-6 사마리아의 심한 가뭄과 기근 / 7-15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 / 16-19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 / 20-40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 41-46 엘리야의 기도로 큰비가 내리다

1 많은 날을 지내고 제 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 아합이 궁내대신 오바다를 붙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4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일백 인을 가져 오십 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5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풀을 얻으리라 그러면 떡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8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0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11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12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와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와 선지자 중에 일백 인을 오십 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15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16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나

18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좃았음이라

19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 오십 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0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22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 오십 인이로다

23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찢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26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

말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간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드릴 때까지 이틀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0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수축하되

31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열 두들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 저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단을 쌓고 단으로 들어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35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날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2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꿰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44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46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라.

- ㉠ (1)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은 시들어 가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극심한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렸다(2, 5절).
- (2) 이러한 때에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4, 13절) 우상의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더욱 열중하였다(19절).
-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비로소 우상은 모두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점점 일기 시작하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가 된 줄 아시고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다(1, 38, 45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전도자들을 적당한 때에 사명지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

2. ㉠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후 얼마 동안 숨어 지냈는가?(1절)

㉠ (1)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체류한 지 3년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1절).

(2) 그런데 그릇 시냇가에서 6개월 내지 1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3) 그러므로 사르밧에서 보낸 3년과 그릇 시냇가에서 보낸 기간을 합치면 약 3년 반 동안을 숨어 지낸 것이다(참조, 눅4:25; 약5:17).

3. ㉡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1, 2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셨다(1절).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낸 것이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4) 이와 같이 우리가 흑암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시 23:4).

4. ㉢ 오바다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3절)

㉠ (1) 오바다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2)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3절).

(3) 이처럼 오바다가 악한 왕인 아합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근면과 성실과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실해야 한다.

5. ㉣ 오바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3절)

㉠ (1)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2) 그런데 왕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너무 열심이였으므로 그가 왕의 신하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오바다는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차지만 물들지 않았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아무리 주위가 악으로 가득차 있더라도 세속에 물들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약 1:27).

6. ㉤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처형할 때에 오바다는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4절)

㉠ (1)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가져다 먹이면서도 도와 주었다.

(2) 그 당시에는 기근이 심하던 때라서 떡과 물이 귀하였으므로 그가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한 것은 큰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3) 즉 오바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들을 어려운 중에도 도와 준 것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물론 하나님 위해 전생애를 바쳐 일하는 교역자(敎役者)들을 잘 도와 주어야 한다.

7. ㉥ 아합 왕은 자신과 가축의 기갈(飢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였는가? (5, 6절)

㉠ (1) 아합 왕은 자신이 소유한 많은 말과 노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두 떼로 나누어 자신과 오바다가 한 떼씩 이끌고 냇가의 물과 풀밭을 찾아 가도록 하였다.

(2) 그러나 그들은 온 땅의 물의 근원과 풀밭을 찾아 헤맸지만 물과 풀을 얻지 못하고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解消)하기 위해 이 땅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4)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요 4:10-15; 6:33-35).

8. **㉠ 오바다가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7-15절)**

- ㉠** (1) 엘리야는 오바다를 만났을 때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아합 왕에게 고하도록 하였다(8절).
 (2) 그러나 오바다는 자신이 아합 왕에게 아뢰기 위해 간 사이에 엘리야가 사라져 버릴 경우 그를 다시 찾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12절).
 (3) 즉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외국에까지 수사망을 퍼고 철저히 찾았으나 그를 찾지 못한 사실을 오바다는 잘 알고 있었다(10절).
 (4) 그래서 오바다는 엘리야를 다시 찾지 못하고 거짓말한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숨길 자가 없다(렘 23:24; 마 10:26).
 (6)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고전 1:25).

9. **㉠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 말했는가? (17, 18절)**

- ㉠** (1)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2)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큰 가뭄의 원인이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에 있다고 말하면서 아합의 죄악을 통렬하게 공박(攻駁)하였다.
 (3) 이처럼 엘리야가 폭군 아합을 향하여 담대하게 불의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오늘날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영적 권위를 힘입을 때 어떤 권세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10. **㉠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두 갈멜 산으로 모으도록 하였다.
 (2)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신임을 밝히면서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능력의 신임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3) 이처럼 엘리야는 우주의 모든 세력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통하여 증거될 것을 믿었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에 따라서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용기가 약할 수도 있다.

11. **㉠ 우상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19절)**

- ㉠** (1) 그것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왕의 식탁에서 호의 호식(好衣好食)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2) 한편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굴 속에 숨어서 떡과 물을 공급받아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13절).
 (3)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매우 핍박을 받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이다.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잠시 동안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일을 더 좋아하여야 한다(참조, 히 11:25).

12. **㉠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20절)**

- A** (1) 아합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 산으로 불러 모았다.
- (2) 이때에 갈멜 산에 모인 사람들은 우상의 선지자들, 아합 왕, 엘리야 그리고 백성들이었다.
- (3)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명령할 때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아합 왕도 꼼짝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진리의 말을 하면 누구나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 13. C**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책망한 것인가? (21절)
- A** (1)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다.
- (2) 즉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편을 택하기도 하고 저 편을 택하기도 하는 자들을 책망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영혼과 문제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자들을 책망하시며(계 3:16) 또한 세상의 벗이 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다(약 4:4).
- 14. C**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안하였는가? (22-24절)
- A** (1)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脚)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였다.
- (2)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였다.
- (3) 그리하여 두 신(神) 중에서 불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신을 섬기도록 제안하였다.
- (4) 이처럼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믿는 확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사람은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의 모든 세력을 무시할 수 있다(참조, 히 11:38).
- 15. C**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神)에게 얼마 동안 기도하였는가? (25-29절)
- A** (1)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큰소리를 지르면서 바알 신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26, 29절).
- (2) 이처럼 그들은 하루 종일 소리지르며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기진 맥진한 상태가 되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였다(28, 29절).
- (3) 이와 같이 엘리야는 그들이 지치고 절망에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 (4)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죽은 신이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와 기도가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 16. C**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조롱하였는가? (27절)
- A** (1) 엘리야는 그들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또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큰소리로 불러 보라고 조롱하였다.
- (2) 이처럼 엘리야는 바알 신의 기도 응답이 없음을 조롱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헛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 (3)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시 121:3, 4),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사 65:24; 눅 11:9; 요 15:7).

17. **㉠**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규례(規例)는 무엇인가? (28절)

- ㉠** (1) 그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렘 41:5).
 (2)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의 신에게 대한 봉사로 간주된다.
 (3)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몸부림이 구원과는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롬 3:20-24; 갈 2:16)고 가르친다.

18. **㉠**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와 단(壇)을 다시 쌓은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30절)

- ㉠** (1) 우상을 숭배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단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2) 이처럼 핍박을 받아 무너뜨려진 여호와와 단을 엘리야는 다시 쌓아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과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처럼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19. **㉠** 엘리야가 여호와와 단을 수축(修築)하면서 열 두 돌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30, 31절)

- ㉠** (1) 엘리야가 열 두 돌을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열 두 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의 제단을 쌓아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3)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엡 2:20-22).

20. **㉠** 엘리야가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33-35절)

- ㉠** (1) 엘리야는 단의 주변에 물이 고이도록 도랑을 만들고 단 위의 번제물과 나무에 열 두 통의 물을 부었다.
 (2) 이처럼 엘리야가 많은 양의 물을 부었으므로 번제물과 나무를 흥건하게 적시고 또한 제단 주변의 도랑에도 물이 가득 고였다.
 (3) 엘리야가 이렇게 행한 것은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4)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참조, 눅 1:37; 고전 10:31).

21. **㉠** 엘리야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였는가? (36, 37절)

- ㉠** (1)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모두 이루어 주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였다(36절).
 (2) 그런 후 그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주의 종됨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지를 깨닫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37절).
 (4)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였다.
 (5)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인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약 4:3).

22. **㉠**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8, 39절)

- ㉠** (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초자연적인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 뿐

만 아니라 돌과 흙도 태웠으며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마르게 했다(38절).

- (2) 그 결과 이 사건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였다(39절).
- (3)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을 나타내 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신다.
- (5)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롬 1:19, 20).

23. **㉠**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40절)

- ㉠** (1)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죽였다.
- (2)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듣고 두려워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다시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한 것이다(신 13:1-11).
- (3)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공의(公義)로 처형한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인들의 불의(不義)한 행동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24. **㉠** 엘리야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였는가? (42절)

- ㉠** (1)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 (2) 이것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셨다(45절).
- (3) 이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렘 29:13; 마 26:39; 눅 22:44; 약 5:17).

25. **㉠**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의 앞에서 달린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44-46절)

- ㉠** (1)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벌판을 건너 이스라엘 언덕까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마라톤 경주자처럼 달렸다(46절).
- (2)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겸손하게 왕을 호위하려는 충성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3) 또한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참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는 것처럼 아합 왕을 사랑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란 행동이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갈 4:19; 딤후 2:9, 10).

제 19 장 호렘 산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

단락구분 1-8 천사의 인도를 받아 호렘 산으로 피신한 엘리야 / 9-18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 19-21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다

1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4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너의 목숨을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 로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

9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

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 엘리야가 듣고 걸음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5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벨므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9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 두 겨리 소를 앞세우고 발을 가는데 자기는 열 둘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걸음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전장과 비교하여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목격한 후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장에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극한 중요심을 가지면서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전개된다.
- (3)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의 단호한 경고에 대해 하는 수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남왕국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호렙 산 굴 속으로 피신하였다.

2. **㉡**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1절)

- ㉠** (1)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적들을 보여 주셨음에도 아합 왕은 엘리야의 행위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신이 본대로 말하지 않았다.
- (3) 이것은 어리석은 왕이 간교하고 잔인한 이세벨을 자극하여 더욱 악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教唆)한 것이다.

3. **㉢**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경고하였는가? (2절)

- ㉠** (1) 이세벨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엘리야를 24시간 이내에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였다.
- (2) 이처럼 그녀가 너무 흥분하여 엘리야를 바로 붙잡아 올 생각을 못하고 그로 하여금 도망갈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 간섭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잠 21:1).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체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도록 역사(役事)하신다(고전 3:19, 20).

4. **㉣**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이것은 자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도 아니다. 오직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말이다.
- (3) 이와 같은 고백 속에는 자신의 생명의 존재 여부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참조, 행 17:25).
- (4)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참조, 눅 23:46; 행 7:59).

5.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떡과 물을 주셨는가? (5-7절)

- ㉠** (1)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보내 주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피곤한 몸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물과 떡을 제공해 주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불어 넣어 주셨다.
- (3) 이와 같이 사람과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시고 아울러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참조, 고후 1:4).

6. **㉥**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떡과 물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이 물과 떡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상징한다(마 4:4).
- (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요 6:33-35).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혼이 소생(蘇生)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요 6:53-58).

7. **㉦**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계속해 두 번 공급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5-8절)

- ㉠** (1) 그 이유는 엘리야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었기 때문이다(7절).

- (2) 즉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시103:14)께서 엘리야가 당할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 길을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시 48:14; 눅 1:79).

8. **Q** 엘리야는 며칠 동안 걸어서 호렘 산에 이르렀는가? (8절)

- A** (1) 엘리야는 40주 40야 동안 광야 길을 걸어서 호렘 산에 도착하였다.
- (2) 이처럼 엘리야가 잠도 자지 않은 채 40일 동안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연단을 하신다(신 8:2; 마 4:1-11).

9. **Q** 엘리야가 호렘 산의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9절)

- A** (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엘리야를 책망하셨다.
- (2) 즉 엘리야가 이세벨의 꾀박을 피하여 굴 속에서 낙심하며 시간 보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다.
- (3)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져서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虛費)해서는 안 된다.
- (4) 우리는 좌절과 실의에 빠졌을 때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다시 주님의 일을 하여 힘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10. **Q**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가? (10절)

- A** (1)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나님께 고하였다(롬 11:2, 3).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극치에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내리신다(17, 18절).

11. **Q**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11-13절)

- A** (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지나가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엘리야가 서 있는 곳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셨다.
- (2) 이 사건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 즉 작고 고요한 소리 또한 경외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재(實在)를 느꼈다.
- (3) 한편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때 그가 얼굴을 가리운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13절).

12. **Q**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13절)

- A** (1)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걸음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
- (2)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다(사 6:2).
- (3)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는 살 수 없었다(출 33:20).

13. **Q**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명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15-18절)

- A** (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하셨다(15, 16절).
- (2)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1절).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던 7,000명을 통하여 당

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다(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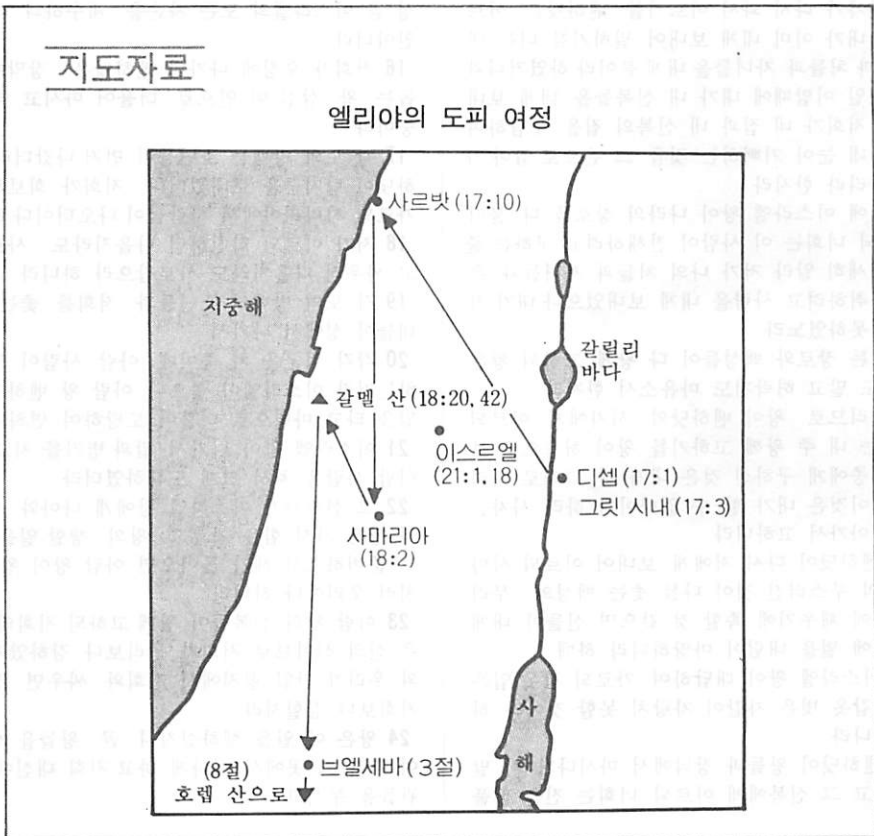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참조, 마 3:9).

14. **㉠**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를 때 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19절)

- ㉠** (1) 엘리야는 그의 겂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서 덮어 주었다.
 (2) 여기서 선지자의 겂옷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참조, 왕하 19:13; 마 3:4) 선지자의 직무를 상징한다.
 (3) 즉 엘리야가 겂옷을 준 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한다는 상징적 행위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16절) 실행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지도자가 자신의 후계자를 택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을 고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후계자를 택하여야 한다.

15. **㉠** 엘리사는 소명(召命)을 받고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19-21절)

- ㉠** (1) 엘리사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19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21절) 엘리야를 쫓아갔다.
 (2)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다(참조, 눅 5:27-29; 9:62).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들은 세상의 물질과 모든 욕심에서 떠나야 한다(참조, 마 10:9, 10; 고전 9:14; 딤후 2:4).



제 20 장 아합 왕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단락구분 1-12 아람 왕 벤하닷의 무례한 요구 / 13-21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에서 이기다 / 22-30 아람 왕이 두번째 아람 군대를 이기다 / 31-43 아합 왕의 어리석은 자비

1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삼십 이 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2 사자들을 성 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3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4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5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들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 가리라 한지라

7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8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9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으로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10 벤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11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12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

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풀니라

13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14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15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제수하니 이백 삼십 이 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제수하니 칠천 인이더라

16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삼십 이 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랴

17 각 도의 방백들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18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19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20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21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22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3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24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25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26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잡고 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27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8 떼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29 진이 서로 대한지 칠 일이라 제 칠 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십만을 죽이매

30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이만 칠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1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굶은 베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32 저희가 굶은 베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33 그 사람들이 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34 벤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35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 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7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8 선지자가 가서 수전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 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 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들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 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온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41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줄 알아본지라

42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43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를 두 번이나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사건은 일찌기 벤하닷의 후계자인 하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리라는 예언(19:15-17)이 있는 후에 발생한 것으로 아직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왕하 10:32, 33).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벌을 연기하신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으심은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알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참조, 롬 2:4).

2. **㉠ 아람 왕 벤하닷은 몇 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1절)**

- ㉠** (1) 아람 왕 벤하닷은 32명의 다른 왕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2) 이 32인의 왕은 벤하닷의 봉신(封臣)들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각 성읍들이 저마다의 왕을 가졌던 것 같이 각 고을을 맡는 두령들이다.
 (3) 여기서 우리는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을 통치하는 벤하닷이 그 왕국 내의 여러 왕들의 맹주(盟主)로 군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 아람 왕 벤하닷은 몇 명의 군대를 모았는가? (1절)**

- ㉠** (1) 벤하닷은 32명의 왕과 말과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모았다(1, 29절).
 (2) 그러나 아합 왕은 232명의 소년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인 7,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15절).
 (3) 그런데 이처럼 세력이 약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벤하닷 왕의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13, 28절).
 (4)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지혜대로 많은 군대를 모아 강하게 준비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시 33:16-19; 잠 21:30, 31).

4. **㉠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첫번째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벤하닷은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다.
 (2) 이것은 벤하닷이 자신의 군대와 권력을 믿은 거만한 행위였다.
 (3)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세력이 조금 강하다고 교만에 빠질 때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잠 16:18).

5. **㉠ 아합 왕은 벤하닷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4절)**

- ㉠** (1) 아합 왕은 벤하닷에게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2) 이것은 우상을 좇던 아합 왕이 비굴하게도 벤하닷의 막강한 군대의 수효를 보고 그의 요구대로 응해 준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3) 이와 같이 인간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조금 강해지면 우월감에 빠져 거만해지고 조금 약해지면 열등감에 빠져 비굴해진다(참조, 렘 17:9).

6. **㉠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두번째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5-7절)**

- ㉠** (1) 벤하닷은 아합의 집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의 집에서도 좋은 것은 모두 수탈해 가겠다고 하였다(6절).
 (2) 벤하닷의 이러한 요구에 아합 왕은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였다(7절).
 (3) 즉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아합 왕이 강한 사람 앞에서 약자가 된 것이다.
 (4)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를 마음대로 다루게 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참조, 시 50:15).

7. **㉠ 아합 왕이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8, 9절)**

- ㉠** (1) 아합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2) 즉 온 백성이 왕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아합 왕은 나약한 왕이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벤하닷의 무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통치자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단결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8. **㉠ 아합 왕에게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10절)

- A** (1) 벤하닷은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고 말하였다.
- (2) 이 위협의 뜻은 사마리아 성을 재로 만들어버리되 한 줌의 재도 남게 되지 못할 만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으로 그의 군대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 (3) 이처럼 벤하닷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13, 19-21, 29절).
- (4)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참조, 잠 26:12; 고전 10:12).

9. **Q** 벤하닷의 군대를 자랑하는 교만한 말에 아합 왕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1절)

- A** (1) 아합 왕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고 대답하였다.
- (2) 이것은 일종의 속담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 (3) 즉 승패는 거꾸어 보아야 알기 때문에 미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충고하는 풍자적 표현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힘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떨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참조, 약 4:15, 16).

10. **Q** 벤하닷은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전쟁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였는가? (12절)

- A** (1) 벤하닷은 전쟁에서 자신이 이길 것을 믿고 술을 마시다가 아합 왕의 풍자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전쟁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였다.
- (2) 이처럼 전쟁에 임하는 자가 교만과 술취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11. **Q**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A** (1)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
- (2) 이것은 참으로 어려울 때에 도와 주는 이는 하나님임을 아합 왕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돌아 오기만을 애타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마 18:12-14; 눅 14:20).

12. **Q** 아합 왕의 군대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14, 15절)

- A** (1) 아합 왕의 군대는 각 도(道) 방백의 소년들 232명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은 7,000 명이 전부였다.
- (2) 여기서 '방백의 소년들'이란 방백들의 지휘 아래 있는 청년, 젊은 사람들을 뜻하며 '7,000명'은 여호와께서는 아합을 위해 그 왕국을 보호하려고 남겨 두신 군인들의 수효이다. 따라서 아합 군은 모두 합쳐 고작 그 수가 7,200여명에 불과하였다.
- (3)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29절)에 비하면 너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격하라고 명령하셨다(14절).
- (4) 이처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19-21절).
- (5)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즉시 순종함이 언제나 승리의 비결인 줄 알아야 한다.

13. **Q** 첫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6-21절)

- Ⓐ (1) 이스라엘의 적은 군대가 아람의 막강한 군대를 쉽게 물리쳤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대로 성취된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교만한 왕 벤하닷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따금 악한 자들을 다른 사람의 채찍과 징계로 사용하기도 하신다(참조, 잠 16:4).

14. ⓐ 선지자는 첫번째의 전쟁이 끝난 후에 아합 왕에게 어떻게 충고하였는가? (22절)

- Ⓐ (1)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아람의 군대가 다시 침략할 것을 대비하여 힘을 기르고 준비하도록 충고하였다.
- (2) 즉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앞으로 적군이 다시 침략할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와 마귀의 세력을 이겼지만 승리한 후에도 계속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힘을 기르고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엡6:10-13; 벰전 5:8, 9).

15. ⓐ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의 두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23-30절)

- Ⓐ (1) 이스라엘의 적은 군대가 아람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쳤다(29, 30절).
-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아람 군대를 멸망시키신 것이다(28절).
- (3) 그 이유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므로 골짜기에서 전쟁하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23, 28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 벌하신다(참조, 렘 48:11-13).

16. ⓐ 두번째의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벤하닷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31, 32절)

- Ⓐ (1) 벤하닷은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 생명을 살려달라고 청하였다.
- (2) 이것은 죄인이 용서를 빌 때 취하는 모습으로 무슨 명령이든지 복종할 터이니 생명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3) 이처럼 벤하닷은 자신의 강한 군대를 의지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무례한 요구를 하다가 이제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시 75:7).

17. ⓐ 아합 왕은 벤하닷의 간사한 요청을 받고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32-34절)

- Ⓐ (1) 아합 왕은 간사한 벤하닷이 비위를 맞추어 오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벤하닷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형제' 라고 칭하였다(32절).
- (2) 또한 그는 벤하닷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의하자 마음이 나약해져서 거기에 응하였으며 또한 벤하닷을 놓아 주었다(34절).
- (3)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公義)를 행하지 않고 단순한 인간의 감정에 얽매어 원수까지도 풀어 주는 죄악을 범한 것이다(42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행하는 선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이 아니라 악이다.
- (5)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소한 동정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르신다고 하심과 동시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 내실 것이다(마 7:21-23).

18. ⓐ 아합 왕이 벤하닷을 놓아 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35-43절)

- Ⓐ (1) 아합 왕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으며(42절)

결국 그 경고대로 죽게 되었다(22:34, 35).

- (2) 그것은 벤하닷이 살인한 죄와(창 9:5; 레 24:17) 하나님을 모독한 죄(레 24:11-16) 등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시 55:23; 롬 6:23) 아합 왕이 그와 교제를 나누며(32, 33절) 살려 주었기 때문이다(34절).
- (3) 이와 같이 악인은 반드시 '음부'에 떨어질 것이며(시 9:17) 선인(善人)과 악인은 영원히 분리된 것이다(마 25:46).
- (4) 그러므로 성도들이 악인과 교제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큰 죄악인 것이다(약 4:4).

19. **㉠** 선지자를 치지 아니한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35, 3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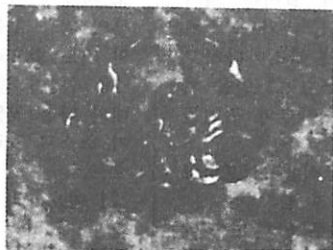
- ㉠** (1) 그는 선지자를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자에게 몰려 죽었다(36절).
- (2) 이것은 하나님의 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公義)대로 벌하지 않은 사악한 왕이 더욱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며(마 12:50) 또한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삼상 12:15).

20. **㉠**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9-43절)

- ㉠** (1) 아합 왕은 스스로 결정하여 그에게 맡겨진 죄인을 풀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 스스로 결정하여 그를 죽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죄를 범하였다.
- (3)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목적과 때가 있는데(전 3:1, 17) 우리가 그 책임과 기회를 등한시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때에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경솔함을 회개하여야 한다.

화보자료

금으로 만든 귀걸이. 아래의 사진은 솔로몬의 보물 가운데 하나라고 추측되는 화려하고도 정교한 금귀걸이인데 예루살렘의 룩펠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왕 벤하닷이 싸우지도 않고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금은과 여자들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3, 5절) 극도의 교만이었다(참조, 10절). 왜냐하면 그는 실제의 전쟁에서는 패하였기 때문이다(30, 34절).

제 21 장 아합 왕의 범죄와 엘리야의 경고

단락구분 1-4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 5-10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계락을 세우다 / 11-16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다 / 17-29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다

1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2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3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5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지로라

7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8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9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1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12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13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14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들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 이세벨이 나봇이 들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17 여호와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내리라 하셨다 하라

20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 또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바야사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야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법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26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같이 우상

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28 여호와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아합 왕의 범죄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아합 왕이 탐욕에 이끌리어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엄한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도 않은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거역한 사실을 나타내 준다(26절).
- (3) 즉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여 제 1 계명을 범함으로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여 살인죄, 도적질한 죄 등을 범하게 된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롬 14:23).

2. ㉠ 아합 왕은 누구의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였는가? (1, 2 절)

- ㉠ (1) 아합 왕은 자신의 궁전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 (2) 그는 나봇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부드럽게 요청하였으나 사실은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으려 하였다(11-16절).
- (3) 이처럼 통치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탐내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4) 그런데 통치자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롬 13:1) 통치자가 권세를 사용하여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더욱 큰 죄악을 범하는 행위이다(참조, 시 10:3).

3. ㉠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였는가? (3 절)

- ㉠ (1)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에게 주신 땅을 자신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 (2) 즉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레 25:23, 24; 민 36:7)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11-16절).
- (3)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참조, 행 4:19).

4. ㉠ 아합 왕이 근심하여 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5, 6 절)

- ㉠ (1)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여 속이 상하였기 때문에 식사를 거부한 것이다(6절).
- (2) 즉 그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속이 상하였으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하였다(11-16절).
- (3)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은 명예, 물질, 인기, 쾌락 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도 자신들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속상해 하고 슬퍼하지만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속상해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참조, 시 6:3,4).

5. **㉠**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9, 12절)

- ㉠** (1)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모독 행위가 있을 때에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관습이 있었다.
 (2) 그러므로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 율법과 경전을 악용하여 이스라엘 성의 지도자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이다.
 (3)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여 우리에게로 다가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마 7:15; 딤후 3:5).

6. **㉠**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 비류(匪類) 두 사람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라(10,13절).

- ㉠** (1) '비류'는 부랑자들을 가리키는데 이세벨이 부랑자 두 명을 매수한 목적은 증인으로 내세워 나봇의 죄에 대해 거짓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나봇의 죄에 대해 같은 증언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었다.
 (3) 그러므로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신 17:5,6)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의 처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술책을 세운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살인한 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公義)를 모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23절; 왕하 9:10,33-35).

7. **㉠**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였는가? (13-16절)

- ㉠** (1) 아합 왕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로부터 들은 후 그 사인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다(16절).
 (2) 그러나 아합 왕은 그의 욕심대로 재물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재물을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19-25절)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22:35).
 (3)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재물을 많이 모으고 편히 쉬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눅 12:16-21).

8. **㉠** 엘리야는 아합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19절)

- ㉠** (1)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은 곳에서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고 예언하였다.
 (2) 이 예언대로 개들은 아합이 피를 흘리며 죽어 갔던 그 병거를 씻을 때 그의 피를 핏았으며(22:38) 그의 아들 여호람은 죽임을 당하여 나봇의 밭에 던지워졌다(왕하 9:26).
 (3) 이것은 행한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출 21:24; 레 24:20)이 성취된 것이다.
 (4)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다 기억하시며 또한 심판하신다(사 59:18; 계 2:23; 20:13).
 (5)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으며 우리가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갈 6:7)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9. **㉠** 아합 왕은 엘리야를 무엇이라고 칭하였는가? (20절)

- ㉠** (1)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나의 대적(對敵)이여'라고 칭하였다.
 (2) 이것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자신이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원흉으로 본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원수처럼 생각한다(갈 4:16).

(4)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악한 자들인 것이다(참조, 마 10:14, 15).

10. **Q**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0절)

A (1) 이 말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경향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였다는 뜻이다.

(2) 이처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범죄에의 충동을 받아 스스로 팔린 자는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요 8:34).

(3)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충동에 스스로 팔리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살전 5:6; 딤후 2:26).

11. **Q**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아합 왕의 더욱 큰 죄악은 무엇인가? (21, 22절)

A (1)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큰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그를 여로보암과 바아사처럼 엄하게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2) 이처럼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일반 백성들보다 그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무거우므로 큰 형벌을 받게 된다.

(3)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12. **Q** 아합 왕의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인가? (23-26절)

A (1) 아합 왕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26절).

(2) 즉 그는 이세벨의 유혹으로 우상 숭배에 철저히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많은 죄악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므로 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참조, 롬 1:21-23; 엡 4:17-20; 요일 1:6, 7).

13. **Q**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27절)

A (1) 아합 왕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천천히 걸어갔다.

(2) 아합 왕은 회개하는 모습이 취하였으나 그가 진실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는 않았다.

(3) 왜냐하면 그가 회개한 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이다(22:8, 26, 27).

(4)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마 3:8).

14. **Q**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29절)

A (1)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2) 이처럼 아합 왕이 비록 철저하게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심판을 유보(留保)하신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합 3:2).

제 22 장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다

단락구분 1-4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다 / 5-28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 여부를 선지자들에게 문의하다 / 29-40 아합 왕이 전사(戰死)하다 / 41-50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 51-53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

1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내었더라

2 제 삼 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3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4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5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6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7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11 그 나이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쫓아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

를 길르앗라못으로 올라가 승리할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13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5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라 저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16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17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가

19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피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피이겠나이다

22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

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피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23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4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25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26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운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7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늙은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28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 지어다 하니라

29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3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31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삼십 이 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2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지르느니라

33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4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6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37 왕이 이미 죽으매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

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38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매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와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39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아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40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1 이스라엘 왕 아합 제 사 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42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삼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43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4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 하니라

45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배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46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7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48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49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50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1 유다 왕 여호사밧 제 십 칠 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52 저가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법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갓 행위 같이 하였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교훈을 말하라.

㉠ (1) 본장에는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더욱 악하였다(16:30, 31).

(2) 이처럼 아합 왕의 악한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 (3) 또한 본장에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악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경계하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이다(참조, 고전 10:11).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 아합 왕이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 땅을 빼앗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길르앗 라못 땅은 본래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으나(신 4:43)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것이다.
- (2)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은 포로 중에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20:34) 라는 협상조건으로 석방된 일이 있었다.
- (3)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조약대로 길르앗 라못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3절).
- (4)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벤하닷을 놓아줌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20절).
- (5) 이같이 아합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무덤을 자신이 판 결과를 초래하였다.

3. **㉠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돕기로 승락한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깝게 지내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후에는 그들이 사돈 관계가 되었다(왕하 8:18; 대하 18:1).
- (2) 이번에도 여호사밧 왕은 평화로운 시기에 아합 왕을 친선(親善)으로 예방하였는데(1, 2절) 결국 그들은 함께 전쟁을 모의하게 되었다(4절).
- (3)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충실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음에도(대하 17:1-6) 악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 죄악에 물들게 된 것이다.
- (4) 이와 같이 죄는 전염병처럼 퍼져 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과 교제하지 말고(고전 5:13)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롬 12:2).

4. **㉠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고’ 자 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 (1)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보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하였다.
- (2)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인임을 나타내 준다.
- (3)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5. **㉠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고 모은 선지자들은 모두 몇 명인가?(6절)**

- ㉠** (1) 아합 왕은 그에게 고용된 선지자들 400명을 모았다.
- (2) 즉 아합 왕은 그의 마음에 이미 결정한 것을 어용 선지자들을 통하여 찬성을 얻고자 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스승들을 좋아한다(딤후 4:3, 4).

6. **㉠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여호와와의 선지자’ 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

지자를 요청한 것이다.

- (2) 즉 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분별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단의 꾀술을 분별하여야 한다(요일 4:1).

7. **㉠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아합 왕은 미가야가 '흉한 일만 예언' 한다고 그를 미워하였다.
- (2) 즉 미가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아합 왕의 미움을 받은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갈 1:10).

8. **㉠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11, 12절)**

- ㉠** (1)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찢러 진멸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거짓 예언을 믿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3)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의 속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20-30절) 그는 스스로 속아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딤후 3:13).

9. **㉠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사자(使者)가 미가야에게 어떤 요청을 하였는가? (13, 14절)**

- ㉠** (1) 왕의 사자(使者)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좋은 예언만을 하도록 요청하였다(13절).
- (2) 즉 그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말하면 당신은 석방되고 왕의 발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압력을 가했다(참조, 24-27절).
- (3) 그러나 미가야는 그 압력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하겠다고 맹세하였다(14절).
- (4)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종은 어떤 권력의 압력이나 재물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행 4:19, 20).

10. **㉠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15, 16절)**

- ㉠** (1) 미가야는 아합 왕이 이미 스스로 전쟁할 것을 결정한 후에 하나의 형식상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을 알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하였다(15절).
- (2) 그런데 아합 왕은 미가야의 빔대는 듯한 말과 표정을 보고 그의 예언을 믿지 않고 그에게 거듭 질문하였다(16절).
- (3) 이처럼 미가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합 왕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욕망에 빠진 자를 그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둔 것이다(참조, 전 11:9).
- (4)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욕망에 지배를 받아 죄의 종이 되어 진리를 증거해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참조, 마 7:6).

11. **㉠ 아합 왕은 미가야가 진실된 예언을 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17, 18절)**

- ㉠** (1) 미가야가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질 것이라는 진실된 예언을 하였을 때 아합 왕은 그 예언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가야를 정죄하였다.
- (2) 이처럼 아합 왕은 아침하는 자들의 말을 즐거워하면서 진실된 자의 말은 듣기 싫어한 결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아침하는 말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진실된 책망을 좋아

한다(잠 25:11, 12;27:5).

12. **㉠**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으로 피어 죽게 하시려고 누구를 이용하셨는가? (19-23절)

- ㉠** (1)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 속에 넣으셔서 아합 왕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도록 하셨다(23절).
- (2) 즉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는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영의 감동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유혹을 받게 하셨다.
- (3) 그 결과 아합은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에게 ‘너는 피이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어서 유혹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그러나 패역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그 유혹에 넘어가며 멸망을 초초한다.

13. **㉠**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를 어떻게 책망하였는가? (24절)

- ㉠** (1)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의 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더냐’ 고 하면서 미가야를 책망하였다.
- (2) 즉 그는 마치 하나님의 영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미가야를 책망한 것이다.
- (3) 이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지한 일부의 부흥 강사들이 마치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하고 외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4. **㉠**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시드기야가 언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25절)

- ㉠** (1)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패전한 후에 시드기야가 겨우 도망쳐 골방에 숨을 때에(참조, 20:30)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즉 이 예언은 시드기야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 (3) 이와 같이 죄인의 종말은 비참하며 또 죄인에게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된다(고전 15:55, 56).

15. **㉠** 아합 왕은 미가야를 어떻게 대접하도록 명령하였는가? (26-28절)

- ㉠** (1) 아합 왕은 미가야를 잡아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27절).
- (2) 그런데 미가야는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였다(28절).
- (3)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은 옥에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한다(딤후 2:9).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며 또한 그때에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마 24:14).

16. **㉠** 아합 왕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였는가? (29-31절)

- ㉠** (1)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게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한 후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싸웠다(30절).
- (2) 그것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한 것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다.
- (3) 그러나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변장을 하였던 아합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다(34, 35절).
- (4) 이처럼 아합이 아람 군대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어 벗어날 수가 없었다.

(5)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대상 28:9; 잠 16:2; 21:2).

17. **㉠ 아합 왕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34-36절)**

- ㉠** (1) 아합 왕은 번장하여 전쟁에 임하였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명중되어 죽게 되었다.
- (2) 죽 한 사람이 어떤 적을 겨냥해서 활을 당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쏜 화살이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장본인을 맞춘 것이다.
- (3) 또한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적들의 공격을 철저하게 방어하였음에도 화살이 유일하게 뚫린 갑옷 술기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 (4) 이처럼 어떠한 무장이나 갑옷도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 (5)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참조, 마 10:29).

18. **㉠ 아합 왕의 죽음이 나타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37-40절)**

- ㉠** (1) 아합 왕은 많은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고 자신의 궁을 상아로 건축할 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다(39절).
- (2)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피를 개가 핥고 또한 그 피가 창기(娼妓)들이 목욕하는 못에 퍼져 나간 것처럼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38절).
- (3) 이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아합 왕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실을 볼 때 인생이 덧없고 허무함을 알 수 있다(참조, 전 1:2; 히 9:27).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씌어질 것을 위해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참조, 전 2:1; 눅 12:16-21; 갈 6:8).

19. **㉠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로 더불어 어떤 관계를 유지하였는가? (41-50절)**

- ㉠** (1) 여호사밧은 아하시야로 더불어 화평한 가운데 친교를 나누었으며(44절) 교역(交易)을 나누었다(대하 20:35-37).
- (2)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야 왕과 함께 선박을 제조하여 오빌로 금을 캐기 위해 출발하였을 때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들이 모두 파선하였다(48절).
- (3) 그것은 여호사밧이 악한 아하시야와 교제를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결과였다(참조, 대하 20:37).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가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책망하신다(약 4:4).

20. **㉠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51-53절)**

- ㉠** (1) 아하시야 왕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51절).
- (2)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더욱 악하여 자신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52, 53절).
- (3) 즉 그는 부모의 모든 행위를 따라 죄악을 범하였으며 또한 그보다도 더욱 악하여 하나님의 노(怒)를 격동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악하여 범죄를 많이 저지르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죄악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더욱 악해진다.
- (5)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말로만 교훈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 자녀들이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참조, 엡 6:4).

연구자료

성경의 전쟁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은 성전(聖戰)의 성격을 지닌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용사이신 여호와' (출 15:3)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슬하게 치루었던 전쟁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나친 악을 자행하고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오만을 가진 이방 국가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지녔다(참조, 암 1:1-2:3).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전쟁은 영토 확장이라는 일반적인 전쟁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종교적인 것이며 언약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 언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출 19:5, 6). 종교적인 전쟁을 치루는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파악했으며(참조, 삿 3:28; 삼상 7:8) 전쟁은 하나님과 상의한 후에 시작되었다. 이때의 신탁(神託) 도구로는 여호와와의 궤(삿 20:27), 에봇(삼상 30:7, 8), 우림(삼상 14:41; 28:6), 그리고 꿈과 선지자 등이 사용되었다(삼상 28:6).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방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며 싸운 사실은 그 자체가 신앙의 실천적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쟁은 '여호와와의 싸움' (삼상 18:17; 25:28)이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신 9:3; 20:4; 삿 4:14). 신약 시대에 이르러 전쟁의 개념은 영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재해석되었다(참조, 고전 14:8; 고후 10:3; 딤후 1:18, 19).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헬, 에클레시아)는 죄와 악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루는 것이다(엡 6:10-12).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움에 임해야 한다(엡 6:10-17). 물론 여기서의 싸움은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악의 유혹, 죄와 싸워 나가는 하루하루의 신앙 생활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싸움도 구약 시대의 성전(聖戰)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골 2:12-15) 성도들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빌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골 3:10, 16, 17).